



延政소식



The Chronical of Yonsei Politics & Diplomacy (Mar. 2008)

제4호(속간 1호) / 2008년 3월

〈과거의 연정소식〉



題字 : 한 순 동문(51학번)

C·o·n·t·e·n·t·s

속간사/속간축하사	02
동정	04
연정 인사이드	08
연속기획 '延政, 로스쿨시대 정법대학의 새로운 전통을 잇다'	14
· 2009 로스쿨 개원과 정외과의 역할	
특집기획 이기택 교수님 별세	15
· "이기택 교수님을 추도하며"	
·故 이기택 교수 추도식 스케치	
특집기획 이신행 교수 2007 도산특별상 교육상 수상 기념	19
· 이신행 교수 공적 정리	
· "이신행 선생님과 함께 했던 토론공동체를 기억하며"	
· "이신행 선생님과 나배월드, 풀뿌리사회만들기"	
기획 표류하는 학부 연정공동체	25
· 설문결과 분석 : 학부 연정인에게 묻다	
· "대학공동체 붕괴, 그 진단과 처방"	
· "다시 파란 피를 생각하며"	
연정포커스	32
·故 황정일 주공공사를 추도하며	
· 17대 대선에서 활동했던 연정인을 만나다 : 공성진, 이경자 동문 인터뷰	
· 연정 외국인 학생들의 "We love 연정!"	
연정 피플	40
· 윤형섭 동문 : "불굴의 의지로 한국 교육발전에 힘쓰다"	
· 문흥렬 동문 : "연세 홍보의 제일선에 서다"	
· 이연주 동문 : "여성계의 부드러운 리더십"	
· 박현우 학우 : "자전거, 너는 내 로망"	
자유기고	56
연정 추천	60
칭찬릴레이	62
편집후기	63
연정 발전 기금 안내	64

속간사

세계화시대에 우리가 서있는 이곳에서 『연정소식』을 속간합니다. 세계화시대는 세련된 유목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촌스러운 『연정소식』에 시간을 쏟았습니다. 『연정소식』은 촌의 이야기,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연정소식』을 만드는 손길들은 마을의 품앗이와도 같았습니다. 자신이 속한 마을을 돌아보고, 마을의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가 쌓여 역사가 됩니다. 그 역사가 미래를 비추어줍니다.

『연정소식』의 속간을 결정했던 것은 지난 2007년이었습니다. 만드는 나날이 많았던 만큼 연정이라는 마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도 길었습니다. 연세동산의 여기저기서 음침한 수근거림도 넘실대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리더를 만듭니다. 리더는 뒤에서 말하기보다는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건전한 공론의 장이 없다면, 그러한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도 연정의 몫입니다.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이 1948년의 독립을 가져왔던 것처럼, 2008년에 속간되는 『연정소식』이 연정이라는 작은 마을을 넘어 연세와 국가의 새로운 비상을 향한 작은 디딤돌이 되어 주리라 믿습니다.

『연정소식』의 속간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상옥 선배님께서 회장을 맡고 계신 연정 53회 동기회에서 쾌척해주신 종자기금이 없었더라면, 『연정소식』의 속간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크고 작은 정성과 관심을 모아주신 연정의 여러 분들이 계셨기에 『연정소식』이 맥을 잇게 되었습니다.

뜻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 명 섭

정치외교학과장, 대학원 정치학과 주임교수, BK21사업단장

속간 축하사

『연정소식』의 복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한다. 1994년 학과장을 맡으면서 연정기자단과 함께 연정공동체 의사소통의 가교역할을 하고자 『연정소식』을 창간 했던 때가 새롭게 다가온다. 그때 3호까지 발간하면서 연정기자단과 혼신을 다했던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계속 발간을 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교차한다. 벌써 세월이 13년이 흘러 당시 연정기자단원들이 사회에서 맹활약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위로삼고 있었는데 복간이 되다니 정말 기쁘고 반갑기 그지없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아”를 어루만지는 아버지 손과 어머니 손같이 우리의 『연정소식』이 연정공동체의 모든 것을 포용하고 화합과 발전의 미래를 제시해주기를 기대한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적 문제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네트워크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개인의 단편적 노력은 협력적 팀워크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연정소식』은 연정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 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연을 확대해주는 중요한 매체로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사실, 학과단위에서의 정기적인 소식지 발간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며 이것을 시도한 학과도 별로 없는 현실이다. 이번 『연정소식』 복간은 우리 연정의 위대한 전통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연정소식』이 연정인들의 활발한 활동을 면면히 결집시키고 연정의 위상을 다시금 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명섭 학과장과 제2세대 연정기자단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우리 연정의 교수, 학생, 동문, 학부모 등 모든 구성원들의 격려와 협력을 부탁드린다.

양 승 함
사회과학대학 학장



동 정

●● 연정 동정

- 2007년도 외무고시 합격자 31명 중 11명이 정외과 화백실 출신으로 35.5%라는 최고 합격률을 달성했다.
- 9월 10일 정외과 화백실 개·보수 완공식이 있었다. 총장, 부총장, 사회과학대학장 등이 참여한 이 행사에서 외무고시 합격자들은 3백만 원의 기부금을 기탁했다.
- 10월 4일 연정 소식지 발간을 위한 연정기자단이 발족했다. 연정기자단은 『연정소식』을 발간하고 향후 웹진(<http://yonjong.net>) 관리를 맡는다.
- 10월 5일 정기 연고전에 학과 교수진이 참관했다. 정외과에서는 학부생 응원단에 음료를 지원했다.
- 10월 18일 제49회 사법시험에 공기녕(’90), 이태원(’93), 이윤환(’99)이 최종 합격했다.
- 10월 31일 ‘학부모의 날’ 행사가 있었다. 정외과는 이 자리에 참석한 학부모 9명에게 『연정 60년사』 및 기념 수건을 증정했다.
-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간 ‘2007 사회대 교수 워크숍’이 있었다. 이 행사에는 송도프로젝트 시찰이 포함됐고, 정외과 교수진이 다수 참석했다.
- 2008년 1월 2일 연희관 301호에서 2008년 새해를 맞이하는 연정 신년하례식이 개최됐다.

- 2008학년도 사회과학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전공설명회가 2월 19일 위당관 강당에서 열렸다. 우리 과 대표로 양승함, 김상준(학과장 대리업무) 교수가 참석했다.
- 2008학년도 사회과학대학 신입생 새터가 2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강화도 마니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렸다. 우리 과에서는 첫째 날 김상준 교수가, 둘째 날 양승함, 김명섭 교수가 참석했다.

●● 동문 동정

- 정치외교학과 53학번 동기회(회장 이상옥)는 제50회 학부 재상봉을 맞아 5월 9일 사회과학대학 학장실에서 정치외교학과 발전기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53학번 동기인 윤형섭 재단이사도 자리를 함께 했다.



- 8월 6일에 주중 황정일 공사(’73)가 순직했다. 우리 과는 故 황정일 공사 가족에 학과 명의로 조의금을 전달했다.

- 10월 24일 종로 한일관에서 연정 동문회 기수별 임원모임이 있었다. 김태환 동문회장, 전상진 동문, 이순동 삼성사장, 이상일 서울신문 논설 위원등 30여명이 참석했고, 이 자리에 김기정, 진영재, 김명섭, 김용호 교수도 참석했다.
- **한승수** 동문(55)이 새로이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로 임명됐다.



약력

1955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입학
1968 | 요크대학교 경제학박사
1988 | 제13대, 15대, 16대 국회의원
1988 | 제34대 상공부 장관
2001 | 제20대 외교통상부 장관
2001 | 제56차 유엔총회 의장
2002 | 연세대학교 정치학 명예박사
2005 |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의 위원장
2007 | 유엔 기후변화협약 특사
2008 | 제39대 국무총리

- **유재건** 동문(56)이 한 · 미의원의교협의회 회장 및 국제의원연맹(IPU) 집행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 **이동건** 동문(57)이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세계적 민간 자원봉사단체인 '국제로타리 클럽' 회장 취임을 앞두고 있다. 2006년 9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총회에서 차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이 동문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6월까지 회장직을 맡게 됐다.
- **이윤호** 동문(67)이 새 정부 초대 지식경제부장관에 임명됐다. 지식경제부는 기존 산업자



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를 부분 통폐합하여 새로 만들어진 부처이다.



약력

1967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입학
1973 | 제13회 행정고시 수석합격
1973 | 경제기획원 근무
1984 | 위스콘신-매디슨대학교 경제학 박사
1987 | 렉기금성경제연구소 이사
1995 | LG 경제연구원 원장
2007 |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2008 | 지식경제부 장관 임명

- **김 양** 동문(71)이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됐다. 김 동문은 백범 김구선생의 손자이며, 상하이 총영사를 역임했다.
- **송태권** 동문(76)이 한국일보 출판국장에 취임했다.
- **홍영만** 동문(76)이 금융감독원 대변인에 취임했다.
- **김현미** 동문(81)이 정동영 후보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다.
- **문명재** 동문(83)이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전직했다.
- **정호희** 동문(83)이 민주노총 사무처장에 취임했다.



알림 : 『연정소식』은 더 많은 동문 제위의 소식을 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문들의 활동상황과 작장이동 및 승진에 관한 정보, 굿뉴스 소식을 보내주시면 『연정소식』에 게재하겠습니다. 동문 제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동 정

●● 교수 동정

- 김달중 명예교수가 동서문제연구원 특임교수로 부임했다.
- 8월 24일 오후 3시, 신학관 예배실에서 이신형 교수의 퇴임식이 있었다.
-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외국인 교수 채용 인터뷰가 있었다. APSA Annual Meeting Placement in Chicago에서 김상준 교수와 김성호 교수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 9월 1일 양승합 교수가 사회과학대 학장, 행정대학원 원장에 취임했다.
- 9월 1일 김명섭 교수가 정치외교학과장에 취임했다.
- 9월 1일부터 Henry B. Sirgo교수가 풀브라이트기금 교수로 우리 학과에서 봉직하고 있다.
- 9월 4일 실시된 하와이대 및 게이오대 연계 원격 영상강의에서 문정인 교수가 『동아시아 지역주의론』을 강의했다.
- 10월 31일 2006년도 우수 업적 교수상 및 우수 연구 실적 표창 시상식에서 양승합 교수는 산학협동 간접비적립기여 부문에서 ‘우수업적 교수상’을, 조화순 교수는 ‘우수연구실적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 우리 학과 추천으로, 이신형 명예교수가 ‘2007 도산특별상 교육상’을 수상했다. 시상

식은 도산 안창호 선생 탄신 129주년을 맞아 11월 9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그랜드볼룸에서 거행됐다.

- 12월 2일 이기택 전 명예교수가 별세했다. 장례식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있었고, 4일에 발인했다.
- 문정인, 김명섭 교수가 집필에 참여한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연세대학교 출판부)가 2007년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 2008년 1월 신명순 교수가 교학부총장에 취임했다. 신 교수는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에 정치박물관 <아고라>를 운영 중이다.
- 문정인 교수가 대한민국 국제안보대사로 활약했다. 문 교수는 2008년 1월 23일~27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 1월 28일 비엔나 대학에서 초청 강연을 가졌다.
- 김기정 교수가 학생복지처장으로 봉사 후 2008년 1월 퇴임했다. 김 교수는 2007 정기연고전 행사를 총괄했다.

●● 학부 및 대학원 동정

- 대학원 및 학부 개강총회가 있었다. 9월 7일에 대학원 개강총회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박정범 원우(석사과정)가 학생회장으로 새롭게 선출됐다. 학부생 개강총회는 9월 12일에 열렸다.

- 2007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5차 유네스코 청소년 포럼>에 박세희 학우(04)가 한국 청소년 대표로 참가했다.
- 2007학년도 1학기 최우등생 시상식이 10월 31일 백주년 기념관에서 있었다. 신윤경 학우(03)가 사회과학대 대표로, 그 외 3명이 최우등생상을 수상했다.
- 11월 26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제19대 모의국회가 '간통죄의 존폐여부'를 주제로 열렸다.
- 12월 1일 제45대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선거 개표 결과, <봉선화 연정>(정후보 이준태(05), 부후보 이지혜(06)) 선본이 당선됐다.
- 최정호 원우(박사과정)가 한-아세안 학술교류 협력기금 지원대상자로 선발됐다.
- 김용신 원우(박사과정)가 로타리재단 해외유학장학생으로 선발됐다.
- 최명호 원우(석사과정)가 외수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 2008년 2월 25일 사회과학대학 학위수여식이 루스채플에서 열렸다. 이번 우리 학과 학위 수여자는 총 76명으로 학사 최우등졸업생 정소정(02) 외 59명, 석사 박경하 외 12명, 박사 김용순 외 2명이다.
- 2008년 2월 27일에 "아시아와 지정학: 이론, 역사, 현실"을 주제로 한 '신촌 3개 대학 정치외교학 공동학술세미나'가 우리 대학원 정치

학과 학생회 주관, 연세·서강·이화여대 대학원 정치학과 학생회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 BK21 동정

[BK21 사업 소개]

신진·후진학자 양성과 연구 및 국제 학술 교류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7년 동안 진행될 2단계 BK21사업에서 우리 학과는 2년 동안 11억 5백만 원을 받게 됐다. BK21에 참여하는 인원은 교수 13명, 연구원 4명 그리고 대학원생은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3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SSCI,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 저명 저널등재와 단행본 출간에 있어서 교수와 연구원은 106편, 대학원생은 총 13편으로 활발히 연구·진행 중에 있다.

- 10월 10일 사회과학 연구소와 BK사업단의 주최로 런던정치경제 대학의 사이먼 히스 교수의 특강이 열렸다.
-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제10회 공군력 국제학술회의'가 있었다. 정치외교학과와 BK21 주관으로 공군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정치외교학과는 10주년 기념패(2개)를 제작하는 등 행사를 지원했다.
- 2008년 2월 13일부터 19일까지 대만 학술교류회의에 장동진, 김명섭, 최연식 교수, 차동욱, 이재현 박사 외 대학원생 8명이 참석했다.
- 이번 BK21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의 논문이 저명한 학술지에 게재됐다.

“부모님과 함께 연희관을” 행사 열려

학부모 8명 참석 “알찬 정보 유익했다”

...적극적인 홍보 요구돼

우리 학교 대외협력처가 주관하고, 우리 학과가 주최한 ‘부모님과 함께 연희관을’ 행사가 지난 10월 31일 오후 2시 연희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총 8명의 학부모가 참석해 우리 과 학우들의 미래를 논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행사는 우리 과 학생회장 최영준 학우(05)가 진행을 맡아 학과를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으로 시작됐다. 이후 학과장 김명섭 교수가 학우들의 학업과 진로에 대해 학부모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장학금, 교환학생 프로그램, 수강신청, 진로 방향 등 다양한 화제가 이어졌다. “아들이 장학금을 받지 못해 혹시 아이가 학업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지 걱정스럽다”는 한 학부모의 우려에 김 교수는 “성적 장학금은 정외과 학우를 통틀어 1명에게만 주어졌던 것 이외의 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우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답해 학부모의 걱정을 덜었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김미숙 씨는 “학과장과 직접 만나 평소 궁금해 하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며 행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른 학부모는 “행사의 좋은 취지에 비해 참석 인원이 적어 아쉬웠다”며 학부모의 참여 정도가 늘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내비쳤다.

이에 김 교수는 “학부모들을 뵈니 학생들을 직접 만나는 것 같아 반가웠다”며 “앞으로는 더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 홍보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행사 소감을 밝혔다. 당초 예정됐던 수업 참관은 학부모들의 사정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 /조진형, 이지혜 기자

양승함, 조화순 교수 우수업적교수상 수상

2006학년도 우수업적교수상 시상식이 지난 10월 31일 동문회관에서 열렸다. 우수업적교수상은 인문·사회·이학·공학·의학·원주캠퍼스 6개 분야의 연구부문에서 각 1명, 산학협동 간접비적립기여부문에서 4명, 산학협동 기술이전부문에서 2명, 총 12명에게 수여됐다. 이와 함께 각 부문에서 총 38명의 교수가 우수연구실적표창을 수상했다. 윤대희 교



학부총장은 기초연설에서 “교수사회에는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 노력과 열정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파급될 것”이라며 향후 교수진의 활약을 기대했다.

이번 행사에서 우리 과 양승함 교수가 산학협동 간 접비적립기여부문에서 우수업적교수상을, 조화순 교수가 연구부문에서 우수연구실적표창을 수상했다. 양 교수는 수상에 대해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에 기분이 좋지만 큰 의미부여는 하지 않고 지금처럼 열심히 하려고 한다.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상이 위주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와 무관하게 교수로서 열심히 연구하고 봉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에진 기자

“최우등생상 탔어요!”

사회과학대 최우등생 총 13명,
우리 과 신윤경 학우가 대표로 수상

2007학년도 1학기 최우등생 시상식이 지난 10월 31일 오후 4시 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박영렬 대외협력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홀을 가득 메울 정도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 교무 위원 및 지도교수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 프로그램으로 각 단과대를 소개하는 시간이 마



련됐는데, 단과대 학장들의 재치 있는 입담과 단과대 자랑 퍼레이드가 이어져 행사가 즐겁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전체 258명의 최우등생상 수상자 중 사회과학대학 수상자는 총 13명이었으며, 김선훈(05), 신윤경(03), 심용아(06), 조은엽(04) 학우(이상 4명)가 우리 과 최우등학생에 선정됐다. 사회과학대학 최우등생 대표로 수상한 신윤경 학우는 “열심히 공부한 것 뿐인데 마지막 학기에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매우 기쁘다. 선물로 감사히 받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신 학우는 최우등학생이 된 비결에 “때때로 학과 공부가 벅차긴 했지만 어렵고 힘든 공부일수록 돌아보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했다”며 후배들에게 학업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조했다.

최우등생상은 지난 학기 평량평균 4.0 이상(4.3 만점), 학과 내 상위 1% 학생들에게 수여된다.

💡 /신나리 기자

다~연정캠프에서 당신의 온기를 느껴다

지난 11월 2일부터 3일까지 경기도 일영 유영지 부근의 펜션에서 ‘다~연정캠프’가 열렸다. 이번 캠프는 지난 1990년대 초부터 학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된 연정공동체수련회가 올해 생략돼 학생회에서 대안으로 마련 했다.

캠프에는 학과장 김명섭 교수가 참석해 학생들과 수업에서 나누지 못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 교수는 학과에 관심을 갖고 캠프나 여타 학과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 학생들과 토론하기도 하고, 학생 개개인에게 장래희망을 물으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김 교수는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많은 활동을 했으면 한다. 학생사회에서 작은 일부터 바뀔 나가려고 할 때 더 큰 열정이 필요하



다. 학교, 학과 혹은 교수에게 요구사항이 있으면 부담 없이 이야기하라”며 학생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이후에는 학우들이 펜션 옆 공터에 ‘캠핑파이어’를 만들어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쌀쌀한 밤공기를 마시며 둘러앉은 학우들은 바쁜 학기 중에 나누기 힘들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환하게 타오르는 불꽃이 잠잠해 질 때까지 함께 밤을 지새웠다. 조준하 학우(06)는 “참가 인원은 적었지만 교수님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아늑한 시간이었다. 학과 차원에서 이러한 캠프를 자주 열어 많은 연정인들과 자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다~연정캠프’를 주최한 제44대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 최영준 학우(05)는 “많은 학우들이 참여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서로의 마음을 나눈 따뜻한 캠프였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학생회 사업을 잘 홍보해 다음에는 모두 다~참여하는 연정캠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유정 기자

제19대 모의국회

‘간통죄’ 주제로 팽팽한 논쟁 벌여

‘제19대 무악민국 모의국회(아래 모국)’가 지난 11월 26일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올해 모국은 우리 사회에서 팽팽한 논쟁거리가 돼 온 ‘간통죄’를 주제로 했다. 1부에서는 연기자들이 대선 후보로 분장해 간통죄에 대한 소견을 밝히는 ‘모의 대선후보 합동 토론회’ 형식으로, 2부에서는 국회의원으로 분장해 간통죄에 대한 찬반을 논하는 ‘법제사법위원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약 30여 명의 관중이 함께한 가운데 연기자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연기자로 참여한 심새벽 학우(행정·07)는 “간통죄에 대한 논의를 연극의 형식으로 보여줌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쉽게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려고 노력했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공연을 관람한 성무현 학우(07)는 “고성과 동문서답식의 대화로 현재 국회의 모습을 잘 풍자했다. 또한 간통죄에 대한 진보, 중도, 보수당의 의견을 각 당의 특색에 맞게 제시함으로써 관객들이 간통죄에 대해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처음에 주장했던 각 진영의 입장이 마지막까지 타협과 절충 없이 이어



진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관람 소감을 밝혔다.

한편 매년 학과의 지원을 받고 진행된 모국이 이번에는 지원을 받지 못해 공연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해 모의국회 준비위원장 이주호 학우(06)는 “그간은 학과의 든든한 지원으로 공연을 알차게 준비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지원이 전혀 없어 추가 기획을 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재 모국 집행부는 올해 재정 적자를 해결하고 2008년 제20대 모국을 준비하기 위해 선배들과의 연락망을 만들며,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이지혜 기자

참신한 시도가 아름다웠던 <열린연정>

2007년 연정을 이끌었던 제44대 학생회 평가

지난 12월 1일, 다가오는 2008년의 연정을 이끌어갈 제45대 학생회가 선출됐다. 올 해 연정을 이끈 제44대 학생회는 12월을 끝으로 임기를 마친다. 작년 이맘때 많은 연정인의 지지로 당선된 <열린연정> 학생회의 공약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제44대 학생회는 ‘열린연정’이라는 모토아래 열린 학생회, 대화가 통하는 연정, 아름다운 학회실이라는 이른바 ‘열·대·아 정책’을 내세우며 당선됐다.

<열린연정>은 첫째, 열린 학생회를 위하여 연정소식지 발간, 학생회 사업과 학생회비 사용내역의 학기별 공고, 온라인 소리함과 휴대폰 문자 건의 시스템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소식지 발간은 기자단 구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연정문집’ 발행으로 대체돼 현재 학기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07년도 봄 학기 학생회 사업과 학생회비 사용내역은 온라인 연정커뮤니티(yonjong.cyworld.com)에 공개됐다. 건의함 역시 정비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홍보됐

으나 실제 가동률은 매우 낮았다.

둘째, <열린연정>은 대화가 통하는 연정을 만들기 위해 동문초청행사, 탐방프로그램, 학년별 기모임, 학과 내 자치집단장 협의회 구성 및 교류 세미나 지원 사업을 계획했다. 탐방프로그램으로 지난여름 총 23명의 학부생이 금강산에 다녀왔고, 올 겨울 기말고사 직후 개성탐방을 준비하고 있다. 기모임은 새로 전공을 배정받은 06학번을 중심으로 봄 학기에 한 번 실시됐다. 그러나 동문초청행사는 섭외의 어려움으로 인해 열리지 못했고, 자치집단장 협의회 구성 및 교류 세미나 지원 역시 시간의 제약과 경제적 이유로 이뤄지지 못했다.

셋째, <열린연정>은 아름다운 학회실, 오고 싶은 학회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학술지·잡지 구독으로 학회실을 학술교류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었다. 이를 위해 기존의 학회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려 노력했으며, 인터넷 연결을 가능하게 해 편리한 과방이 될 수 있도록 도모했다. 그러나 학술지·잡지 구독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실행하지 못했다.

<열린연정>은 그 전의 학생회가 하지 못했던, 혹은 하고자 시도했던 참신한 사업을 계획하고 이행하려 노력했다. 그 가운데 ‘연정 금강산캠프’는 단연 돋보였다. 캠프에 참가했던 신현석 학우(05)는 “기존의 MT와는 색다른 단체 활동이었고 북한 사람들과 다





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 김승현 학우(05)는 “비용이 좀 비싸기는 했지만 연정인들과 함께 북한을 둘러보고 분단 상황에 대해 얘기할 수 있어서 의미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런 참신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열린연정>은 몇 가지 아쉬움을 남겼다. <열린연정>은 학생회의 사업들을 주로 온라인 연정커뮤니티를 이용해 홍보했는데, 학우들의 연정커뮤니티 이용률이 적어 홍보가 효과적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에 연정인들의 참여가 저조해 고질적인 ‘참여 부족’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 <열린연정>의 학생회장 최영준 학우(05)는 “연정인들이 왜 참여하기를 꺼리는지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이 부족했었던 것 같다”고 자평했다. 부회장 서정민 학우(06)는 “(학부제 이후) 고질적인 문제인 과/반 이중소속으로 인한 학과행사 참여 부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학번별 기모임을 적극 추진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한편 임성혁 학우(07)는 “이번 학생회 사업들이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서 좋았지만, 모든 연정 학우들을 아우르지 못했고 교수님들과의 교류가 적었던 점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또한 <열린연정>은 연정인들 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매년 진행됐던 ‘연정공동체수련회’가 올해 생략된 데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아 학우들의 의문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잘 이뤄지지 않아 일부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열린연정>은 수련회의 대안으로 ‘다~연정캠프’를 마련해 연정인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힘썼다. ‘다~연정캠프’는 기존의 연정수련회가 갖고 있는 고비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했지만 역시나 홍보 부족으로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했다는 문제를 남겼다.

새로 출범하는 제45대 <봉선화 연정>학생회는 <열린연정>이 풀지 못한 홍보의 문제를 극복해 더 많은 연정인이 함께 모여 ‘봉선화’처럼 꽃피울 수 있는 연정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 /장미 기자

“봉사, 선진, 화합의 학생회가 되겠다”

84.8%의 지지율로 <봉선화 연정>선본 당선

지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치러진 제45대 학생회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봉선화 연정>선본이 당선됐다. <봉선화 연정>선본은 총 163표 중 찬성 138표, 반대 21표, 무효 4표를 받아 약 84.8%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총 투표율 54.3%를 기록해 연장투표 없이 개표할 수 있었다. 개표는 12월 1일 오후 5시부터 우리 과 학회실에서 <봉선화 연정>선본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최영준 학우(05)의 참여 아래 이뤄졌다. 단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들 표정에는 사뭇 긴장감이 감돌았다. 개표가 시작된 뒤 84.8%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당선이 확정되면서 분위기는 후보들의 환호 속에 뜨겁게 달아올랐다.

<봉선화 연정>은 봉사, 선진, 화합의 줄임말로 봉사하는 학생회, 앞서 나가는 연정, 합



깨하는 연정공동체를 의미한다. 학생회장 당선자 이준태 학우(05)는 “소극적인 학생회를 탈피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45대 학생회장 당선자 이준태 학우와의 일문일답.

▶ 학생회 선거 출마 계기와 준비과정은?

▶▶ 정치외교학과에 들어와 연정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이러한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찾다가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학부제로 과/반체제가 양립하여 매우 혼란한 가운데, 연정공동체가 모든 연정학우를 아우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정학우들의 화합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학생회를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 <봉선화 연정>의 주요 공약은?

▶▶ 크게 네 가지로 첫째, 정외과 수업 쿼터제를 실시해 우리 과 학생들이 다른 과 학생들보다 우선적으로 전공수업을 신청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둘째, 대단위의 컨퍼런스를 개최해 연정수련회의 맥을 이어가겠습니다. 셋째, 연정 논문집을 발간해 수업에서 배우고 연구하는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넷째, 견학프로그램을 추진해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돕겠습니다.

▶ 45대 학생회장 당선자로서 지난 44대 학생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내리자면?

▶▶ 44대 학생회는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그 사업들을 완성하는데 있어서는 안타까운 점이 많았습니다. 학생회가 학생들과 융화되지 못했고 학생회 안에서부터 참여가 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정 금강산 캠프’와 같은 사업은 매우 참신했습니다.

▶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의 역할은?

▶▶ 학부생 · 원우 · 교수 · 동문 등 모든 연정인을 ‘연결’ 할 수 있는 그런 학생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봉선화 연정>은 이러한 역할에 초점을 둘 생각입니다.

 /장미 기자

“연정 2008년을 열다”

새해맞이 연정 신년하례식 열려

2008년 무자년 새해를 맞아 지난 1월 2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연희관 301호에서 신년하례식이 열렸다. 식에는 연정학회원, 교수진, 대학원생, 학부생 등 많은 연정인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학과장 김명섭 교수의 인사말로 시작된 하례식은 교수진과 연정학회원들의 하례사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무자년 쥐띠 해를 쥐처럼 부지런히 뛰어 연정을 더욱 빛낼 수 있는 한 해로 만들자고 다짐했다. 이러한 뜻을 모아 연정학회장, 학과장, 교수진, 대학원 대표, 학부 대표 등은 함께 떡을 자르는 분병식을 거행했다.

또한 이 자리에는 2008학년도 대학원 정치학과 신입생들이 모두 참석해 교수진과 연정학회원들과 새해 인사를 주고받았다. 대학원 학생회장단 하례와 학부 학생회장단의 하례가 끝난 뒤에는 참석자 모두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과와 함께 덕담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연희관에서의 신년하례식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오찬 자리로 옮겨 2008년 연정의 밝은 미래를 기원하며 학과장의 건배제의에 응했다. 이 날 주류는 (주)두산에서 일하는 이정태 동문(81)이 지원했다.

 /장미 기자

2009 로스쿨 개원과 정의과의 역할



지난 2008년 2월 4일 우리 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아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으로 확정됐다. 오는 2009년 3월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이 폐지되고 최초의 로스쿨이 개원함에 따라 정의과는 학부대학 가운데 단독으로 정법대학의 전통을 잇게 됐다.

정의과는 1945년 연희전문학교 시절 정치학과와 외교학과로 각각 창설되었던 것이 1946년 연희전문이 연희대학교로 승격하면서 통합돼 본격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당시 연희대학 문학원에 속해 있던 정의과는 1950년 새 학칙이 인가됨으로써 문과대학으로 소속명칭을 바꾸고, 1954년에는 정법대학이 출범함에 따라 정의과와 법학과가 문과대학에서 분리돼 정법대학시대를 열었다. 이 기간 동안 정의과는 교수진 확충 및 교과과정 혁신, 1946년부터 시작된 정법학회의 활성화 및 학회지 『화백』을 창간하는 등 힘겨웠던 시대에 찬란한 등불을 밝혔다.

약 30여 년간의 정법대학시대에 이어 1980년대 들어서는 정의과가 사회과학대학으로 소속을 바꾸

면서부터 유신시대의 질곡을 딛고 새롭게 출발했다. 1981년 3월 법학도가 법과대학으로 분리 독립함으로써, 종래의 정법대학에서 사회과학대학으로 명칭을 바꾸고 행정학과 및 신문방송학과와 함께 사회과학대학에 소속하게 된 것이다. 현재는 기존 학과에 더해 사회복지학과, 사회학과, 문화인류학과 등이 사회과학대학에 소속돼 있다.

한편 우리 대학 및 우리 학과는 오는 9월 본인가 및 내년 3월 로스쿨 개원을 앞두고 설립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다. 학교 측은 '로스쿨 준비 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교육과정, 교과목 개발, 교원임용 및 시설완비 등 로스쿨 개원을 위한 수정 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정의과는 '법과 정치' 분야의 전공 교수를 모집하고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연정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나은정 기자

“ 이기택 교수님을 추도하며 ”

장동진 | 정치외교학과 교수

언제나 뵈올 수 있고, 언제나 교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기에 교수님의 급작스러운 영면은 저희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에 헌신하셨던 교수님들은 물론 현직 교수, 학생, 그리고 동문에게도 큰 충격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학문과 정책자문을 통해 교수님이 현대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헌을 잘 아는 지인들은 물론 한국사회에도 큰 충격과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1일 저녁 9시 45분 이기택 교수님이 급작스럽게 영면하시고, 12월 4일(화) 9시 발인과 9시 30분 연희관 앞뜰에서 간단한 사회과학대 추도식을 거쳐, 당일 11시 - 12시 사이 영락동산(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릉리)에 안장된 지도 벌써 2주일이나 지났지만, 저희들에게는 예기치 못한 일이었고 또한 마음의 준비가 없었기에 허탈한 마음이 아직 가라앉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허한 와중에 교수님을 추도하는 글을 쓰는 것조차도 황송한 일이라 느껴집니다.

교수님이 살아생전 학문과 현실정치에 미친 심원한 영향력은 현대 한국을 살아온 지식인이라든가 현실정치에 깊이 관여한 인사라면 누구나 다 아

는 사실입니다. 특히 교수님의 깊은 학문에 영향을 받은 많은 제자들이 현재 학계 및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교수님의 뜻을 이어 학문과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학문적 인연을 맺은 대표적 제자들로, 고우성, 김세중, 최영진, 조정민, 문정인, 이춘근, 전동진, 이인호, 양기호, 서동주, 이진영, 윤성학, 김성호 등이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연세대를 비롯한 국내의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며, 일부는 외부와 언론분야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여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교수님은 아주 오랫동안 정책자문 및 학문적 관계를 통해 군의 주요 인사 및 젊은 장교들과 깊은 인간적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군위탁 교육을 통해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서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많은 젊은 장교들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교수님 재직동안 계속 되어 군사 및 안보 분야에서 주요한 활약을 하고 있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비교적 최근에 교수님과 긴밀한 학문적 및 인간적 관계를 유지하였던 김해원,

홍찬기, 최태복, 이동찬, 오치근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수님이 특별히 아꼈던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많은 제자들이 사회의 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이름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불민한 제가 교수님을 만난 것은 70년대 교수님의 학부강의를 통해서였습니다. 정확한 과목명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도 국제정치사 아니면 국제관계이론 과목으로 여겨집니다. 교수님의 강의는 이론과 현실을 누비는 깊은 통찰력과 독특한 분석을 제공하였기에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으며 또한 매우 흥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느낌이라 강의를 수강하였던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감하는 바였습니다. 이후 저는 대학원에 입학하여 교수님의 독특한 통찰력과 분석력을 배우기 위해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조교를 지원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교수님과 함께 학문적 대화를 더 편하게 일상적으로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저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원 과정 내내 교수님의 연구논문과 정책자문과 관련된 글을 접하고 또 정리하면서 점차 학문의 세계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배우고자 하였던 교수님의 독특한 통찰력과 분석력은 도저히 흉내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교수님을 만난지 30여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교수님의 독특한 ‘생각하는 방식’을 배우지 못한 것은 여전히 학문적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이후 교수님의 연구실을 떠나 또 다른 학문의 세계에서 저는 우연하게도 국제정치분야를 떠나 정치이론(정치철학)을 전공하게 되었는데, 아마도 이것은 교수님의 생각하는 방식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하는 구체적 내용은 달라도 ‘생각한다는 것’은 모든 학문분야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정치이론을 공부한 후 한국에서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에서 교수님과 함께 강의를 하고

또 학문적 대화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일생 일대의 큰 행운이며 기쁨이었습니다.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늘 통찰력과 현실적 정세분석의 미진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원 시절 그리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귀국한 이후 매년 교수님 댁에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세배를 하고 술과 더불어 국제정세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교수님의 정세관을 듣는 것은 무척 신선하고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은퇴하시고도 고우성, 김세중, 이춘근, 이인호, 김성호 박사님 등 친근한 제자 분들과 함께 6개월에 한 번씩 저녁식사를 하면서 보냈던 즐거운 시간은 교수님의 생각의 향기가 저희들에게 스며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만나 뵈는 때마다 교수님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함께 제자들의 학문적 자세를 고취시키고 격려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즐거움은 이제 교수님의 영면과 함께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20대 어린 나이에 교수님의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받아 그것을 배우고 싶어 정치학 분야에 들어서게 된 지도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교수님과 직접 만날 수 없기에 깨닫게 되는 것은 이렇게 해서 하나의 학문이 세대를 걸쳐 계승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간 교수님이 성취하신 업적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에 다음과 같이 회상하여 정리해 봅니다.

우선, 교수님이 국제정치사와 국제관계이론 분야의 연구를 통해 한국의 정치학 분야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교수님은 당시 영미계통의 정치학 분야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행태주의 연구경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제정치연구에서 역사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비판과 지적은 현재 통계학적 또는 형식이론의 연구경향이 크게 지배하는 국제정치연구의 한계를 지적해주는 데에도 여전히 설득력을 지닙니다. 교수님이 저술하신 많은 저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국제정치사』(1983, 증보 및 개정판 1993, 제2개정판 2000)는 이러한 교수님의 문제인식의 총결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적 관심과 함께 교수님의 국제정치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분단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이러한 민족적 고심은 『한반도통일과 국제정치』(1991)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수님의 국제정치사, 국제정치이론, 국제정치와 한반도 문제는 교수님의 회갑을 기념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저술한 『전환기의 국제정치이론과 한반도』(1996)에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후 교수님은 국제정치이론을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아주 훌륭한 안내가 되고 있는 『현대국제정치이론』(1997)을 저술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표 역서로 『국제정치사이론』(1987)과 『국제관계이론』(1996)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당한 저술이 있는 것은 부득이 생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수님의 회갑을 기념한 『전환기의 국제정치이론과 한반도』에 기고한 후학들은 교수님의 제자로서 교수님의 학문을 훌륭히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교수님의 국제정치연구는 역사 및 현실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어, 교수님은 특히 한국의 외교, 안보, 국방 및 통일정책과 관련한 수많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국가정책의 큰 방향은 물론 구체적인 정책 입안에 참여하여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70년대부터 교수님은 남북조절위원회 전략위원회 지도위원, 국방부 합동참모부 자문위원, 재무부 국유재산관리위원, 국무총리정책자문위원, 통일원 정책자문위원,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국방연구원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국가의 중요정책 수립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교수님은 연세대에 오신 직후부터 학생들의 외무고시준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화백실을 별도로 만들어 주셨으며, 외무고시 합격자들의 외무고시 안내 특강에 매년 참석해 많은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최영진 전유엔대

사/외무차관을 비롯하여 많은 연정 및 연세대 출신들이 한국의 외교 일선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도전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점은 기억에 새롭습니다. 교수님의 이러한 현실적 기여는 현대 한국을 움직여온 '심층동인'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현실적 기여가 현실정치에 직접 몸담지 않고 학문적 연구를 지속하면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셋째, 아마도 학문과 현실정치에의 기여, 이 양자를 병행한다는 것은 학자에게는 하나의 현실적 꿈이자 이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학문연구에만 전념하여 현실정치에 대안을 제공하는 데에는 무력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 현실정치에의 기여를 목표로 하여 학문의 진정성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교수님께서 현실정치에의 참여의 제안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로서의 기품을 잃지 않으면서 현대 한국의 국가운영에 깊이 관여하여 크게 기여한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하였던 것은 교수님이 지니신 깊은 학문, 나라사랑과 인간사랑에 바탕한 인품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실에서 늘 편안하고 자상한 대화로 제자들을 대하였던 가정대학(구) 뜰을 배경으로 한 교수님의 연구실의 풍경이 한 폭의 그림으로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교수님의 얼굴 뒤편으로 가정대 뜰은 봄에는 온갖 아름다운 향기로운 꽃들로, 여름에는 무성한 숲으로, 가을에는 어우러진 붉은 낙엽으로, 겨울에는 아늑한 눈으로 뒤덮였던 풍경이 새롭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연정에 뿌리신 학문적 열정과 업적은 후학들에게 거름이 되고 삶의 지침이 되어 새로운 가르침의 꽃으로 거듭 피어날 것입니다. 부디 평안히 영면하시길 바라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07. 12. 18.
불민 제자 장 동 진

“故 이기택 교수 추도식 스케치”



지난 12월 1일 지병으로 별세한故 이기택 교수의 추도식이 4일 오전 9시 30분 연희관 앞뜰에서 거행됐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 교수진과 많은 수의 학부생, 대학원생, 동문 및 학교 관계자가 추도식에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추도식은 고인의 넋을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됐다. 학과장 김명섭 교수가故 이기택 교수의 약력과 업적을 소개하고 이어 사회과학대학 학장 양승함 교수가 고인을 회고했다. 양 교수는 “갓 대학에 입학한 저에게 한반도 국제정세에 대한 강의를 통해 급변하

는 국제정세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강의뿐만 아니라 외무고시를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큰 힘이 돼 주셨다”며 고인에게 감사를 표했다. 고인의 인간적인 면모를 회상하는 대목에서는 추도식에 참석한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적셨다.

추도식은 운구행렬이 생전에 고인이 열정을 바쳤던 연희관을 떠나면서 끝났다. 장지까지의 운구행렬에는 우리 과 교수 일부와 고인의 학덕을 입은 학부, 대학원, 화백실 학생들 일부가 참여했다.

💡 /박세희 기자

“이신행 교수 2007 도산특별상 교육상 수상,,



이신행 교수 공적 정리

이신행 교수는 새로운 공동체 조직과 시민 사회 형성을 위해 이론적 연구 뿐 아니라 직접 사회 현장에 접근함으로써 다양한 공적을 쌓았다. 1968년부터 지난 2006년까지 YMCA를 통한 교육활동을 통해 관료성에 함몰되어 기존의 회원성과 운동성을 잃어버린 YMCA 개혁에 이바지함으로써 과거에는 6,70년대 학생운동의 정체성에 대해,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민 없는 시민사회라는 한국적 현실에 대해 고민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 교수는 1993년 이후 ‘새로운 사회 만들기’란 목표 아래 학부 수업과 학회 그리고 대학원생들에게 조직 활동을 통한 사회 만들기의 장을 마련하는 시민교육을 실시했다. 민회와 풀뿌리 학교, 체화당 이란 과제를 부여받은 학생들은 한국 사회를 이끌어어나가는 주체로서의 시민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 각자가 숨 쉬고 발 디디고 있는 지역사회의 현실과 대안으로서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할 수 있었다.

민회는 93년 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신촌민회가 2001년 교회, 사찰, 학교의 대표들을 중심으로 재창립 되면서 활기를 띠었고, 2005년에는 신촌인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를 통해서 신촌지역인들의 대표성을 얻었다. 그 후 대학과 지역 사회의 주요한 이슈에 대한 공론의 장인 신촌논단을 개최하고, 지역축제 등을 만들어 왔다.

이어 재작년 5월에는 종로지역의 역사성과 공공성을 가진 단체 대표들을 만나고 설득한 끝에 종로민회가 창립되었다. 99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노마.소.이 풀뿌리사회만들기 학교’는 지역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는 대안적 대학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함에서 비롯돼 현재 신촌 체화당, 전



라남도 나배도, 지리산 왕시루봉에 캠퍼스를 두고 있다. 카페 체화당은 민회의 의사당, 풀뿌리 사회만들기 학교의 교정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획된 공간이다. 소비적인 공간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카페를 대안적 문화공간과 시민사회운동의 거점이 되는 하나의 실험적 장소로 의미가 깊다. 이 교수의 제안으로 학생들은 카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자원봉사로 체화당지기(카페 도우미)에 참여하기도 하고 있으며, 이신행 교수의 책들도 카페에서 대여해 볼 수 있다.

대학 내 자유로운 토론이 불가능했던 80년대 학생들과 치열하고 자유로운 토론 수업을 위해 토론공동체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신행 교수는 전국 각지에 토론캠프를 마련하여 학생들과 사회와 정치, 역사의 중요한 쟁점에 대해 토론수업을 진행하고, 직접 학생들이 우리 사회현장과 지역의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프로그램이 낳은 결과 중의 하나는 99년 8월 23일 '지리산을 사랑하는 열린 연대(지리산 연대)'의 창립이었다. 수업에 참가했던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지리산 연대는 지역의 정체성을 가꾸고 지켜나가기 위한 범지역적인 연대 조직으로 지리산 자락의 주요한 종교, 환경, 문화, 역사 단체들이 참여하면서 지역의 권위체로서 등장했다. 이밖에도 토론공동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풀뿌리의 세계성'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다른 세계의 지역 사회에 대해 탐색하고 네트워크 교류를 통해 풀뿌리 사회운동이 갖는 함의를 몸소 체험하는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렇게 진행된 다양한 프로그램은 훗날 『토론 없는 시대의 토론』이라는 2권의 단행본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정리 신나리 기자



이신행 선생님과 함께 했던 토론공동체를 기억하며

이기호(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1984년 1학기는 사회과학대학이 지금의 연희관으로 이사를 바로 앞두고 지금은 사라진 옛 광복관 건물을 마지막으로 쓰고 있던 때이다. 이른바 지상과 지하에 다양한 형태로 복직 거리던 서클이 대학의 중추역할을 담당했던 터라 강의실에서 교수님들을 뵈던 것은 그 다음으로 여기던 때다. 1, 2학년 때는 강의 선택의 폭이 좁아 항상 학번 순으로 앉는 대형 강의에 익숙해 있었는데 2학년이 되던 84년 1학기, '정치학 원강'을 신청하고 강의실에 가보니 학생이 30명 가량 모여 있었다. 수업시간이 시작되자 허름한 평상복의 아저씨가 들어오시길래 우리 모두는 경비아저씨인줄 알았다. 그런데 이분이 출석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나이가 든 조교인줄 알고 언제 교수님이 오시나 하고 있었는데 강단에서 내려가지 않고 이어서 수업을 하시면서 당신이 이신행교수라고 말씀하시자 순간 우리들은 좀 당황했다. 당시 5공화국의 최루탄으로 뒤덮인 캠퍼스에는 으레 교수님들이 벡타이를 맨 정장차림으로 다니셨다. 그게 학생들에 대한 예의라고 선생님들은 생각하셨고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권위의 제복이었을지도 모른다. 아울러 그래야 전경들한테도 학생으로 오해받지 않을 수 있었을 터이고.

전형적인 동네아저씨 차림의 범상치 않은 첫인상에 이에 문장의 끝은 항상 다양한 여운을 담아둔 느릿한 목소리로 끝이 나서 yes인지 no인지가 분명치 않은 것도 신기했다. 이러한 어법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상상력도 자극했지만 학생들에게 뭔가를 말하게 하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유도했던 것 같다. 더 놀란 것은 당시의 분위기로 상상하기 힘든 사회운동을 한 학기 동안 사례연구로 우리가 발표해야 한

다는 것이었다. 미국의 흑인운동, 한국의 지역운동, 반전운동, 마이너리티 운동 등 당시로서는 서클에서만 공부하던 것을 영어원전을 통해 학습하고 발표하라고 하니 신선하기도 했지만 부담도 만만치 않아 두 번째 시간에는 수강인원이 반으로 줄어 15명이 남았다. 좀 길어졌지만 이신행 교수님과 23년 전 처음 만났던 인연은 이렇게 평범함으로 완전무장(?)한 교수님의 범상치 않은 말투와 옷매무새 그리고 처음 들어보는 ‘마이너리티 운동’이라는 새로운 강의에 대한 흥분으로 시작되었다.

이신행 선생님의 강의는 항상 우리에게 말을 걸고 시키는 강의였다. 한 학기 내내 ‘나의 언어’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토론식 수업은 서클에서 맞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자아발견의 시간이자 사회발견의 시간이기도 했다. 언제나 발제 뒤에는 논평이 있었고 논평 뒤에는 또 다른 논평자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야 토론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강의시간은 언제나 부족했다. 그 때 수업을 함께 들었던 친구들이 그해 겨울에 선생님과 함께 1박 2일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안을 했는데 뜻밖에도 선생님은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셨다. 당시에 왜 장소를 단양으로 정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출발하지 못한 선생님께 우리는 목적지를 대충 설명하고 먼저 떠나왔다. 산과 계곡 사이의 이른바 MT 장소였는데 시내에서 제법 들어간 산골이라 우리는 해가 지고 밤 9시가 넘어가자 선생님이 합류하리라곤 기대하지 않았다. 드디어 소주에 의지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누다가 통기타를 두드리곤 했는데, 김민기의 작은 연못을 부를 무렵 11시가 훨씬 넘어서 완전히 등산객으로 무장한 이신행 선생님이 나타나셨다. 밖이 춥고 캄캄했을 터인데 핸드폰도 없던 시절에 전화 한통 없이 땅에서 솟듯 등장한 선생님한테 우리는 또 한 번 놀랐다. 그 뒤에 이신행 선생님 별명을 ‘이산행’이라고 붙였던 것 같

다. 다음날 우리가 언 손을 비비며 먹던 만두집은 그 뒤 단양에 댐이 생기면서 단양팔경의 일부와 함께 물 속으로 사라졌지만 지금도 강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그 뒤 오늘날까지 선생님의 브랜드가 된 ‘토론공동체’는 1986년 여름이 되어서야 시작되었다. 그 때는 졸업반이었기에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캠프가 되겠구나 하고 참가했는데 실은 그게 시작이었고 오늘날까지 20년이 넘게 캠프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섬들을 누비고 90년대 중반에는 지리산 왕시루 봉으로 올라가 이제는 남해의 나배도를 기지로 하여 동경, 북경, 뉴욕으로 넓어지고 있다. 1986년의 처음 섬 순례는 생리적으로는 매우 불편한 여행이었다. 그해 여름이 무척 더웠고 가물어서 섬 위에 오른 우리들은 충무공 동상이 우뚝 서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의 귀퉁이에 자리한 수도꼭지의 졸졸 흐르는 물로 40여 명의 식수를 공급해야 했다. 언제나 그렇지만 우리가 자는 자리는 항상 빼격거리는 교정의 교실 나무 바닥과 운동장에 세운 텐트였다. 그래도 당시에 우리들은 불평을 하지 않았다. 그 옛날 마오의 대장정은 이보다 더 힘들었을 것이었고 지리산의 빨치산 역시 그러했을 터이니 이렇게라도 간접 경험을 하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도 있었고 견딜만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문자 그대로 토론공동체를 차렸다. 아침부터 조별로 밥을 해먹고 나면 해가지고 나서도 토론은 이어졌다. 밤이면 각 그룹의 토론 노트를 열심히 기록하여 밤을 새고 등 사지에 철판로 일일이 원본을 만들어 먹물을 묻혀 가며 우리식 토론공동체 일간신문을 발행하였다. 수업시간의 토론과 다른 점은 요즘 하는 말로 끝장 토론을 할 수 있었고 고생스러운 산행과 잠자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동지라는 의식을 갖게 하여 입장이 다른 토론에도 불구하고 진한 우정을 나눌 수 있었다. 게다가 항상 눈치를 봐야했던 80년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었고 다양한 대안들이 공동의 상상으로 구성될 수 있었다. 이신행 선생님의 원칙이었는데도 모르지만 토론은 항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고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는 좌표들을 조준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항상 늦은 밤에는 침묵의 밤순례를 떠났는데, 침묵과 어둠은 자신과의 대화였고 자연과의 대화로 진행되었다. 선생님은 토론을 통해 사회와 역사속에서의 자신의 좌표를 그리고 침묵을 통해서 자연과 영혼에서 자신의 좌표를 발견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다.

섬 순례를 하던 토론공동체는 여름과 겨울 방학에 빠짐없이 진행되어 지리산으로 올라가기까지 제법 많은 섬들을 돌았고 그곳에서 우리는 또 다른 사회와 또 다른 인물들과 조우하였다. 전체 인구가 7명밖에 안 되던 굴업도는 그 후 핵 폐기장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너무나 좋은 계곡을 가지고 있던 천혜의 섬 나로도에는 다리가 놓여 육지로 이어졌다. 때로는 비바람에 갇히기도 하고 외지인이 섬에 가서는 이장님을 알현(?)하지 않은 죄로 곤욕을 치루기도 했지만 그 때는 아무리 외지라 하더라도 폐교는 보기 드물었다. 오히려 불알을 내놓고 누런 코를 붙이고 다니는 꼬맹이부터 제법 누나 역할을 하던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우리 주변을 어정거리던 기억이 새롭기만 하다.

토론공동체를 함께 했던 많은 친구들 그리고 선배는 이신행 선생님과 함께한 토론공동체가 삶의 깊은 이정표로 남아 있을 것이다. 호기심과 삶에 대한 고민으로 뒤편벽인 채 열혈청년의 세월을 보내는 그 시기에 토론공동체는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 그리고 역사와 정치를 공동체 안에서 토론하고 사고하는 기회는 그리 흔치 않기 때문이지만 그보다는 선생님께서 던지는 질문에 나름대로 고민하는 과정이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남기 때문일 것이다. 정답이 없는 선생님의 질문은 우리에게 영원한 화두로 남아 있다. ‘현장’이 없는 삶의 공허함으로부터 나의 삶의 현장을 발굴하고 개척하는 일,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일, 자신이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설계하는 일, 역사와 대면하는 일, 그리고 함께 할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 등은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화두들이다.

선생님은 그러한 화두를 실천하면서 살아오셨다. ‘학교’라는 현장이 선생님의 우선순위였고 그래서 선생님은 언제나 강의하는 일에 지장을 주는 일은 항상 거절하셨다. 대신에 학생들에게는 항상 시간을 듭씩 쓰셨다. 그리고 지리산으로 토론공동체의 근거지를 옮기려는 무렵에는 신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신촌을 구상하셨는데, 신촌민회와 체화당, 노마소이풀뿌리 사회학교 등이 그 거름이다. 이제는 40대가 되어 386세대라는 표현마저 어색해진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토론공동체는 영원히 함께 자라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들이 선생님과 함께 토론하고 꿈꾸었던 많은 생각들은 항상 청춘의 열정으로 살아남아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산으로 남아 있다. 우리의 후배들 또한 이 거름들 속에서 또 다른 토론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신행 선생님과 나배월든, 풀뿌리사회만들기

최선(정치학과 석박사통합과정)

헨리 데이빗 소로우에게 ‘월든’이 있었다면, 이신행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에게는 아마도 ‘나배월든’이 있을 것이다.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 부근에 있는 나비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나배’라고 이름이 붙여진 작은 섬, 그 섬에 있는 폐교된 지 오래된 작은 분교의 교문에는 ‘나배월든’이라는 뜻말이 서 있다. 나배월든에서 학생들은 소로우처럼 자연을 배우면서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알아간다.

이신행 선생님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중의 하나가 토론공동체이다. 토론공동체는 1980년대 중반부터 강의실을 떠나 자연을 벗 삼아 자신의 삶과 사회를 성찰하며 토론하는 자리로서, 지리산 왕시루봉, 나로도, 덕적도 등을 거쳐 2005년부터는 나배도에서 토론공동체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됐다.

우리가 ‘나배월든’이라고 부르는 나배도는 서울에서 8시간 정도 걸리는 먼 곳으로, 배가 하루에 한 번밖에 다니지 않는 작은 섬이다. 나배도에 도착해 처음 만나게 된 나배분교는 1998년에 폐교될 당시의 모습 그대로였다. 전기와 수도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교실에는 양초를 켜야 했고, 생활용수는 학교 지붕에 빗물을 받아 물탱크에 저장해서 사용해야 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소로우가 통나무집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가 생활할 공간을 직접 마련해야 했다. 어설프게나마 정돈을 마친 후 교문 앞에 ‘나배월든’이라는 뜻말을 세울 당시의 뿌듯함을 잊을 수 없다.

나배월든에서는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모든 식사는 생태식단이어야 한다. 평소에 즐겨 먹던 인스턴트

트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들은 생태식단에서 제외된다. 자연에서 얻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재료들만을 가지고 밥상을 준비한다. 또한 나배월든에서는 누구나 예외 없이 역할이 분담된다.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 운동장의 잡풀을 베는 사람, 우물을 청소하는 사람, 무너진 축대를 세우는 사람, 교실을 청소하는 사람 등 각자 나배월든을 만들어가는 역할이 있다.

나배월든의 밤은 아름답다. 서울에서 볼 수 없는 은하수와 별들, 가을이면 반딧불이가 온 밤하늘을 장식한다. 그런 밤에 떠나는 밤순례는 모두가 한 줄로 멀찍이 떨어져 홀로 걸으면서 별빛과 달빛에 의지하여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다.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바람소리와 파도소리, 풀벌레소리를 들으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연 속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인 것이다.

나배월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 토론시간에는 헨리 데이빗 소로우나 니어링 부부의 삶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개인적 고민이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시간에 우리들은 ‘토론’과 ‘경청’을 배울 수 있다. 토론이 밤늦게까지 이어지지만 우리들의 열정은 뜨겁다. 이러한 열정은 정년을 앞둔 이신행 선생님도 마찬가지이다. 나배월든의 일원으로 모든 일정을 같이 소화하고 늦은 시간까지 학생들과 같이 앉아서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그렇다고 그가 토론을 주도하는 것도 아니다. 몇 시간의 토론이 계속되는 동안 다만 몇 마디가 전부이다. 가만히 앉아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을 경청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노교수보다 못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나배월든의 마지막 밤에는 재구성 발표 시간이 있다. 나배월든에서 생활한 기간 동안 토론한 내용을 연극이나 노래, 시 등으로 재구성하여 무대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는 토론의 내용을 정리



2006 나배월든 토론공동체

하고 소화하는 시간이다. 우리들은 창조적이고 기발한 무대를 연출한다.

지리산에서부터 나배월든까지 20여 년 동안의 토론공동체를 통해서 이신행 선생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신 것일까. 선생님은 “사회의 나사못이 되지 말아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이는 사회에서 나사못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들만이라도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라는 것이다. 그 말씀을 실천 하길 바라셨던 듯, 토론공동체 후에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조직을 스스로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하셨다. 기성의 때가 묻지 않은 학생들의 순수함이라는 특권으로 사회를 조직해보라는 것이다. 어떠한 것이든지 자신만의 풀뿌리적 조직을 만들어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격려에 용기를 얻은 우리는 신촌을 주 무대로 하여 ‘토론’과 ‘경청’을 확산시켜 나갔는데, 그것이 풀뿌리사회만들기학교, 신촌민회, 체화당이다.

2006 나배월든 토론공동체 풀뿌리사회만들기학교는 지역의 일꾼을 찾고 길러내는 대학으로서 수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4년에 개교해 현재 7기 ‘배울이’를 모집하고 있고, 신촌민회는 1992년에 ‘무악신촌만민공동회’의 이름으로 창립된 후 재창립의 과정과 침체기를 거쳐 2005년 봄 학기에 재창립돼 현재까지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신촌민회는 신촌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경청하는 자리이다. 2005년 가을에는 ‘종로민회’를 창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고, 이듬해에 종로민회가 창립됐다. 체화당은 2001년경에 이신행 선생님이 마을에 제공한 카페로 학생들이 운영한다. 체화당은 카페이면서 바자회, 마을 음악회, 어린이학교, 농산물 직거래 등을 통하여 신촌인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장을 마련해주고 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풀뿌리사회만들기의 실험들은 이신행 선생님의 제안으로 신촌에서 학생들이 중심이 돼 시작됐고, 이제는 아마추어적 성격을 벗어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토론공동체에서 자신과 사회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고, 이후에 자신이 스스로 공동체나 토론조직 등의 풀뿌리적 일감을 구상하여 조직해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를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삶과 사회를 연결시켜보는 훈련을 하게 되고 나아가 사회의 주체로서 삶을 구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학업에 더불어 취업과 사회진출을 준비하기에 바쁜 학생들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기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다. 주저하는 우리들에게 선생님은 토론공동체를 제안하셨다. 토론공동체에서 스스로 생활공간을 꾸며 보았던 경험이나, 여러 벼들과 진지하게 토론하고 경험했던 경험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공간에서 작은 조직을 만들어 보는 실험을 가능하게 한 것 같다. 이러한 학습의 과정은 학생들을 자신의 삶과 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훈련이자, 그 자체가 풀뿌리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사회의 나사못이 되지 말라는 선생님의 말씀이 여전히 강력하다.

“무릇 정치는 공동체의 토대 위에서 꽃 피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학을 공부한다는 우리네 연정인 사이에서 정작 ‘연정공동체’의 의미는 퇴색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줄어드는 학회와 동아리, 소수의 행사 참가자가 이를 반증합니다. 지금의 ‘연정공동체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분석기사와 두 편의 기고가 이어집니다.

표류하는 학부 연정공동체 — ”

●●● 설문결과 분석 : 학부 연정인에게 묻다

“솔직히 말이 ‘연정인’ 이지, 대학 4년을 다녔어도 전공 수업에 들어가면 처음 보는 얼굴이 많아요.” 지난 2000년 광역학부제가 시행된 이후 과/반체제의 공존으로 인한 전공학과 활동의 침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학과 학생들을 이어주던 과 학생회의 역할이 축소되고, 전공 분야에 관해 열띤 토론을 할 수 있던 학회가 사라졌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몇 개의 과 동아리들은 참여저조와 재정 적자 등으로 인해 활동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공학과 활동의 침체를 광역학부제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 각종 조모임, 퀴즈, 쪽글 등 전공 수업에서 요구하는 많은 부가 활동들로 인해 학우들은 교수 및 선배, 동기, 후배들과 마주할 시간이 없다. 과 학생회에서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해도 학우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행사는 매번 저조한 참여율을 기록한다.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과거 우리 학과의 전통이자 자랑이었던 ‘연정공동체의식’은 퇴색한 전통으로만 남게 될 것인가?

과거에는 ‘민주정치, 자주외교’를 모토로 교수, 학생 할 것 없이 모두 모여 잘못된 사회를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이는 암울했던 사회 분위기 속에 공동체 조직이 필연적이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시의 학우들은 ‘연정’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 모여들었고, 모의국회, 연정공동체수련회, 타고 정의과 학생들과의 교류, 학회 활동 등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배우고 시야를 넓히며 ‘시대정신’을 공유했다.

현재의 연정공동체는 과거의 교수-학생 및 학우들 간의 끈끈했던 관계맺음을 잊지 못하고, 학회, 동아리 등을 통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지 못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학과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입학과 동시에 ‘반’에 편성된 학우들은 1년이 지나 과를 배정받고서도 소속 학과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전공 교수에게 다가가기 힘들어한다. 한편 학우들의 학과에 대한 무관심도 점차 늘어나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연정소식』은 지난 2007년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이를 동안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는 06학번 이상 학부생을 대상으로 ‘연정공동체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 조사에 총 155명의 학

기 획

| 표류하는 학부 연정공동체

생들이 응답했고, 응답자 중 남학생은 79명(51%), 여학생은 76명(49%)이었다. 소속별 인원을 살펴보면 정치외교학을 제1전공으로 하는 학생이 116명(74.8%), 이중전공자 21명(13.5%), 부전공·타전공자 18명(11.6%) 순이었다. 응답자의 학년별 분포는 06학번이 44명(28.4%), 05학번 27명(17.4%), 04학번 22명(14.1%), 03학번 25명(16.1%), 02학번 13명(8.4%), 01학번 6명(3.9%), 00학번 이전 6명(3.9%)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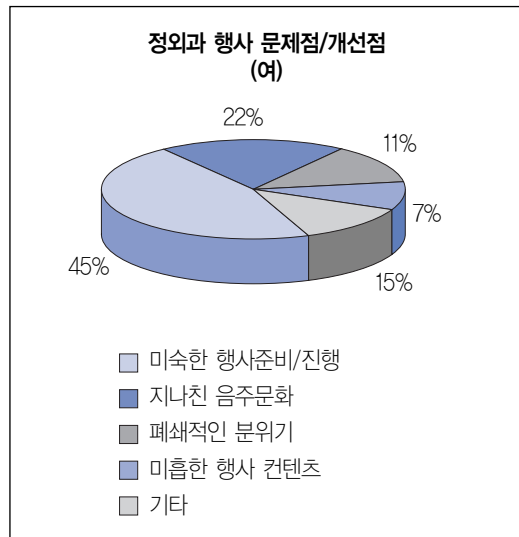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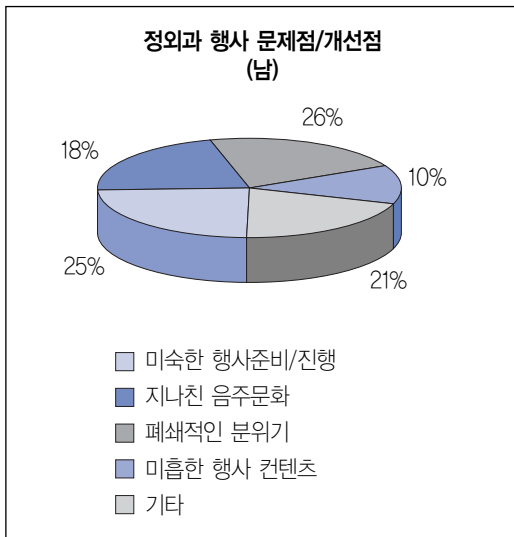
활발하지 못한 학과 활동으로 인한 학우들의 소속감 약화는 약 39%의 학우들만이 학과를 자신의 준거집단으로 꼽은 데서 살펴볼 수 있었다. 정외과 주관 행사에는 약 55.5%의 학우들이 참여한 경험이 있었지만, 약 70%는 학기당 1~2회 정도 참여하는 실정이다.

행사 참여에 있어서도 약 62.8%가 동기, 선/후배 권유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외과 행사에 참여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절반

이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49.7%)' 행사에 불참했다고 대답한 것과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인의 유무'를 통해 행사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엄연히 공동체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동체에 동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행사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학생회가 열린 공동체로 다가가지 못해 많은 학우들을 끌어 모을 수 없었음을 나타낸다.

참여한 행사에 대한 만족도는 학우들의 46.5%가 '대체로 만족한다'고, 33.7%가 '보통이었다'고 답했다. 특징적인 것은 저학번의 경우 약 61%가 만족을 표한 반면, 고학번의 경우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점이다(약 46%). 이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행사 내용이 고학번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못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외과 행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약 37%가 단연 '폐쇄적인 분위기'를 지적했다. 특히 여학우들의 45%, 저학번의 50%가 '폐쇄성'을 연



정 행사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는데, 이 또한 공동체라는 미명 하에 정작 공동체로서 모두를 아우르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학우들은 미흡한 행사 콘텐츠(20%), 지나친 음주 문화(17%), 미숙한 행사 준비 및 진행(9%)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한편, 학부생들의 학습능력 향상 및 교수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진로 탐색의 길을 확대하고자 마련된 '지도교수제도'에 대한 인지여부도 설문에 포함됐다. 정외과 학생들의 대부분(78.5%)이 지도교수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자신의 지도교수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67%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그 중 절반 정도가 지도교수와 면담을 하거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주목할 만한 결과는 57%의 학우들이 지도교수에게 '진로 문제'를 상담하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학부에서 배운 전공을 취업에 연결시키는 데 무리가 있거나, 진로 방향의 갈피를 잡지 못해 방황하는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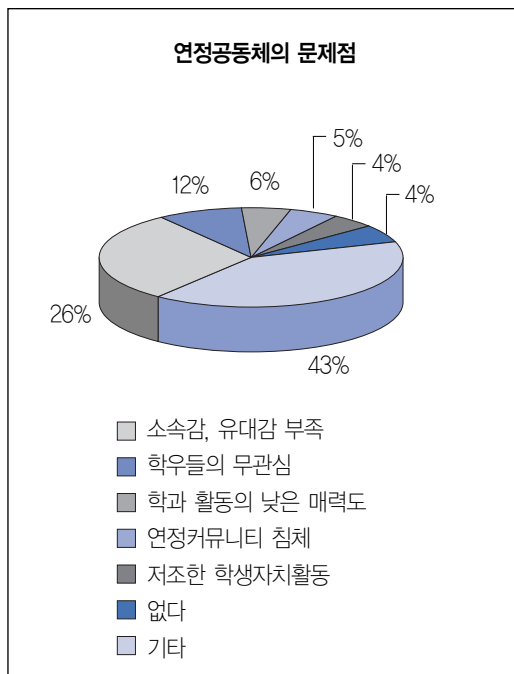
우가 허다하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멘토'의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학우들은 연정공동체의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학우들의 42.3%가 공동체 구성원의 소속감 및 구성원 간 유대감이 부족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또한 학우들의 무관심(26%)과 학과 활동의 낮은 매력도(12%)가 공동체의식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연정공동체의 위기에 많은 학우들이 공감하는 만큼, 연정공동체가 과거의 끈끈했던 유대감을 되살려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학문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오갈 수 있는 논의의 장, 교수-대학원생-학부생들이 삶에 대해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홍보의 다각화를 통한 구성원들의 참여 유도(38%), 학회 및 동아리 활동의 지원·장려(23.2%), 학우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22.6%), 보다 적극적인 학우들의 의견 수렴(12.2%)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희망적인 것은 학과 및 학생회 차원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4대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열린연정>은 생략된 연정공동체수련회를 대체하는 성격의 '다연정캠프'를 마련했고, 45대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봉선화연정>은 동문-교수-대학원생-학부생 등 모든 연정인을 연결하는 학생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학과 차원에서도 '연정기자단'을 구성해 지난 1996년 이후 휴간된 『연정소식』을 속간함으로써 농도 짙은 '연정'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 연정인 스스로 공동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활발히 소통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 /나은정 기자



●● 대학공동체 붕괴, 그 진단과 처방

박동걸(OI)

“대학공동체, 특히 학회활동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깊다. 정치외교학과 01학번인 나도 대학공동체의 붕괴와 파편화된 개인주의만이 잔존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나는 2001년도 정치외교학과 입학 이후로 약 1년 동안 “한국정치학회” 활동을 하였다. 그 당시 학회 세미나의 진지한 분위기와 열띤 토론, 그 이후 뒤풀이에서의 학회 선배들과의 격식 없는 논쟁은 신입생인 본인으로서 문화적 충격에 가까웠으며, 진정한 대학생살이 무엇인가를 조금이나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겨울합숙 기간동안 하루 종일 근대와 탈근대에 대한 텍스트를 읽은 뒤 밤늦도록 세미나를 하고, 선배들과의 술 한 잔과 함께 하얀 설원 위에서 맨발로 응원했던 기억은 가슴 속 저편에 큰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듯, 군에 입대하기 전 나의 학회생활은 좁은 강의실에서 틀에 박힌 주입식 강의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성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으로 남아 있다.

입학 당시 한국정치학회를 제외하고 국제정치학회, 서릿발, 프로스(pros) 등 사회과학대 내에서 자리하던 학회는 현재 자취를 감추고 와세연 및 모의국회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학회의 붕괴, 다시 말해 대학공동체의 붕괴는 어느 곳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

원인과 대안을 찾기 전에 우선 학회 활동을 포함한 대학공동체의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를 다시금 역설하고 싶다. 그것은 학교 강의실에서 배울 수



하는 가슴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공간이며, 아무런 제약 없이 나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고, 상대방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지구상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표현이 조금 과할 수도 있겠지만, 대학 입학 전 중·고등학교 시절과 대학 졸업 후 수동적인 사회생활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개인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대학을 포함한 시민사회적 관점에서 학회와 대학공동체의 활성화는 교양을 갖춘 시민의 양성과 공적 토론이 이루어지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기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처럼 중요한 학회 및 대학공동체의 활성화가 최근 붕괴되고 있는 이유는 사회적 차원과 대학교육적 차원, 그리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우선 사회적 차원에서 현재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라는 가치의 확대는 경쟁과 효율의 원리만을 강조한 나머지 공동체 의식 및 협동 의식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사조는 오로지 기업의 이윤 극대화만을 목적으로 하여 상아탑으로 불리던 대학교육조차도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간형만을 찍어내는 공장으로 만

들었다. 급기야는 개별학생들의 대학생활의 목표가 오로지 학점, 토익점수라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학회 및 대학공동체의 재건설을 위해서는 사회, 대학, 그리고 개인의 차원에서 모두의 노력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다.

우선 사회적 차원에서 학벌 및 성적우선주의 풍토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정부 및 기업의 인재 채용과정에서 성적뿐만 아니라 학회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교내 활동이 가산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인재 채용과정에서 동아리 및 학회 활동의 반영비율이 높으며, 이러한 인재들을 채용한 기업들이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이윤의 창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로 대학 차원에서 학회 및 대학공동체 활동에 대한 예산의 지급과 함께 단과대별 세미나실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러한 유형적 노력과 더불어 학회활동에 대한 인증제도 혹은 최근 멘토링 제도와 같이 고학번들이 주축이 되어 소규모의 학회활동을 이끌도록 유도 하는 학점제도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대학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학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학회활동이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회활동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주도할 수 있는 선배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따라서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 학회”를 만들고, 이로부터 면대면 의사소통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학회활동이 일회적인 만남에 그치지 않도록 사이버상의 노력과 정기적인 학술 개최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학회 및 대학공동체 활동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두꺼운 벽을

힘껏 깨뜨릴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전해 드리고 싶다. 그러한 두꺼운 벽을 깨뜨린다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지적 갈등의 해소와 배움의 향유,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생각한다.

●● 다시 ‘파란 피’를 생각하며

정진웅(정치학과 박사과정)

지방 유학생으로 거의 10년 동안 고학을 하고 있는 내게는 그 긴 연륜(?)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거처를 옮기는 일이 여전히 고역이다. 싱글에 여전히 학생인지라 그다지 짐이 없을 것도 같지만, 그래도 사람이 한 곳에 머무르면 그 집에 먼지라도 쌓인다고 매번 한 짐이나 되는 것들을 버리고서도 이삿짐은 그 집에 처음 들어왔던 날보다 꼭 많아지곤 한다. 석사학위를 마치고 이사를 가던 1년 전 그 날도 마찬가지였다. 엄청나게 불어버린 세간에 그 날 내가 버리기로 한 것들은 고등학생 때부터 봐오던 시사 월간지였다. 그래도 정이 붙은 것들이라 담배 하나에 불을 붙이고 잠시 땀이라도 식힐 겸 앉아서 그것들을 훑어보는데 한 기사가 유독 눈에 띄었다. 1995년 봄 무렵에 나온 월간 『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기사는 당시 연세대학교 과학생회장들과의 인터뷰로 채워져 있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획 기사의 제목은 ‘붕괴되는 과 공동체,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어느 날 연정소식지 복간을 준비한다는 후배로부터 ‘공동체’에 대한 글 하나를 청탁받았다. 90년대 초반부터 현안이었던 과제를 여전히 후배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데 대해 참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도토리’가 없어 똑같은 곡을 계속 들어야만 하는 것 같은 지루함이 생겼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공

동체'라는 것이 나에게도 가장 큰 화두였던 경험에서 오는, 그래서 어깨를 다시 짓눌러와 피하고 싶은 부담이지 단순한 지루함은 아니었다.

여기서 나는 크게 두 가지의 주문을 하려 한다. 경우에 따라서 그 주문은 도발적으로 느껴지는 비판일 수도 있다. 하나는 공동체의 복원과 강화를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것이며, 주문의 또 다른 대상은 그 공동체의 울타리 밖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이다. 현실 속에서 후자의 사람들은 전자의 사람들에게 야속한 사람들일 수 있다. 후자에게 전자는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사람일 수도 있다.

솔직히 이 주문은 공동체에 대해 한참 고민하던 시기에 도의적 책임으로, 그리고 가슴 속에 담아둔 채 예의 상 하지 못했던 이야기이기도 하다. 더구나 양비론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는 — 결코 그렇지 못함에도 — 도덕적 우월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기성 언론의 양비론을 어썩잖게 흥내 내리는 것이 아니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고민했던 것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함이다.

L.A. 다저스의 라소다 前감독이 자기 몸에 파란 피가 흐른다고 그랬던 것처럼 내 몸 속에는 '파란 피'가 흐른다. 그리고 이 글을 부탁한 후배들도 그럴 것 같다. 그런데 이 피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강제로 수혈할 수 있을까? 그러기 전에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에 먼저 답을 해야 한다. 아니 구해야 한다. 그것은 글을 쓰고 있는 내게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질문이다. 공동체는 왜 필요한가? J. F. 케네디와 정반대로 이렇게 묻자. "공동체는 사람들에게 뭘 해줄 수 있는가?"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상

태에서 주변을 서성거리는 사람에게 공동체에서 함께 하자고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 변화한 세대 속에서 자기에게 아무 것도 이익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집단에 애착을 갖기는 힘들다. 어쩌면 우리는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지 못한 채 공동체에 적극적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연시하고 또 그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야속해했는지 모른다. 후배들이 실시했다는 설문조사가 의의는 있겠지만 미안하게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 학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는 사람이 없거나 홍보가 부족해서' 라면, '마당발'을 홍보원으로 내세우거나 홍보 포스터를 더 많이 붙이면 된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기술적 문제이고 응당 해야 할 일일 뿐이다. 오히려 그런 것이 없어도 공동체가 자기에게 중요하고 이익이 된다고 여겨지면 행사장의 의자는 항상 부족할 것이다.

어려운 질문이고 힘든 일이다. 그런 이유로 90년대 초반에 시사 잡지에서까지 다루었던 주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여기에 이르렀을 것이다. 하지만 이 근원적 질문에 답을 구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다. 공동체 안에서 이미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동체가 왜 좋은 것이고 내게 어떤 기쁨과 이익을 주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정리해서 표현하기를 어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배격하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같은 배타적 연정주의가 아닌 호혜적 연정주의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답을 찾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정된 지면으로 인해 할 말을 다하지 못하지만, 원한다면 나도 그렇고 아직도 많은 선배들이 함께 고민하고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아직도 우리에게 '파란 피'가 흐르기 때문이다.

얼마 전 기름유출로 신음하고 있는 태안에 대학원생 몇 명이 자원봉사 차 다녀온 적이 있었다. 그때 마침 대규모 자원봉사단을 이끌고 온 대우조선의 한 임원(우리학교 경제학과 73학번)이 대학원생들이 연대 동문임을 알고 기뻐하면서 식사며 장비며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한다. 그 선배가 만약 우리 연정 출신이었으면 어땠을까? 경제학과에 비해 후배 사랑이 남다른 과가 연정임을 고려한다면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다. 물론 재미있는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나는 간혹 과거의 그 어떤 세대보다도 자신의 이익에 적극적이라는 요즘의 우리 후배들에게서 이율배반을 목격하거나 답답함을 느낀다. 학과가, 연정 공동체가 자신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열려 있는 기회마저 활용하지 않는 소극적인 모습을 자주 발견하기 때문이다. 교수님과 진로 상담을 하고 싶어 하는 후배들이 많다고 한다. 교수님들 역시 언제나 그런 학생들을 반가운 얼굴로 맞이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장학금 신청 마감일이 되어야 학과 사무실에 나타나 추천 도장을 찍어줄 자신의 지도교수를 확인하는 학생들이 태반이다. 그러면서도 기회가 부족하다고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야말로 이율배반 아닌가? 강의실 밖에서도 학과의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고 토론하면서 다른 것들을 배우고 싶은 희망도 있다고 한다. 5개의 학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방학에는 각 학회 소속의 연정인들이 연합하여 바닷가를 찾아 3박 4일 정도 집중 세미나도 하고 여흥도 즐기던 학회연합MT의 기억이 또렷하다. 기회가 없음을 탓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들어보라. 원한다면 대학원생들도 기쁘게 멘토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연정공동체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되돌려 준다. 공동체 안에서 다른 연정인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면서 느끼는 효능감은 무형의 큰 기쁨이

며 경험이 될 것이다. 졸업 이후 사회에 나가 활동하다가 연정후배를 만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 안달인 선배들이 많다는 것을 상상해보라. 더구나 원하든 원치 않든, 옳든 옳지 않든 우리 사회는 그 사람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준거집단까지도 그 개인의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현실이라면, 연정공동체에 참여하여 발전에 힘을 보태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한 일도 된다.

역시 한정된 지면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나는 후배들이 이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기를 권하고 싶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혹 앞에서 말한 ‘피’ 이야기와 여러 표현들이 학연이나 순혈주의처럼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연정은 그런 음습한 틀을 일찍이 초월해 있다는 것이다. 다시 J. F. 케네디와 다르게 말하고 싶다. “공동체가 해 줄 수 있는 게 많으니 와서 만들고 느껴보라.”



연정포커스



故 황정일 주중공사(73)를 추도하며

순국자에 대한 예우를 촉구하며

지난 2007년 7월 29일, 주중 한국대사관의 정무공사 황정일 동문(사망당시 52세)이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항생제 주사를 맞은 지 20여 분 만에 돌연 사망했다. 황 공사는 전날 저녁 대사관 사무실에서 남은 업무를 처리하다 부근에서 사온 샌드위치를 먹은 뒤 심한 복통과 설사를 일으켜 귀가 후, 다음날 오전 베이징 시내 중심가인 차오양(朝陽)구 광화(光華)로의 비스타 클리닉에서 링거주사를 맞던 중 호흡 곤란을 일으켜 사망했다.

당시 황 공사 유족들은 병원 측의 과실이라며 고인의 장례를 거부했고, 병원은 비공식적으로 의료사고를 시인하며 위로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 황 공사의 직접 사인은 1, 2차 한·중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심근경색으로 판명 났으며 순직으로 처리돼 10월 17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주중 한국대사관 측은 사고 직후 유가족들에게 '법적으로보다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유족에게 유리하니 대사관에서 맡아 처리하겠다'며 '절대 중국 정부를 자극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라'고 권했다. 그러나 대사관은 병원과의 협상에서 유족들을 철저히 배제했고, 당초 병원 측에서 제시했던 위문금보다 더 적은 액수의 위문금을 받는 것으로 결론지으며 이 사건에 대해 차후 재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요구했

다. 급기야 11월 28일, 대사관은 '유가족들이 개인 신분으로 병원과 직접 협상하라'는 구두통보를 보내왔다. 이에 유족들은 12월 31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상 협상에 나서달라'고 요청하는 진정서를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유족 측은 진정서에서 '중국 병원 측과의 협상은 지금까지 경험과 자료들로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양지하고 있는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진행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이 진정서는 병원 측이 주중 한국대사관의 중개 하에 지난 9월 '위로금으로 미화 1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유족에게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외교부가 유족 측의 직접 협상을 거론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9일 외교통상부는 공식 공문을 통해 유족들이 중국 국내법 절차에 따라 민사소송 혹은 중재절차를 개시하거나 병원 측과 직접 협상하도록 협상책임 유족들에게 떠넘겼다. 1월 21일에는 조희용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황 공사) 사망 이후 절차에 관해 외교부로서 나름대로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협상할 성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현재 정부가 나서서 협상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중국 병원과 주중 한국대사관의 협상이 끝났음을 시사했다. 황 공사의 유족들은 이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며,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정책이 허술함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 / 정리 신나리 기자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활동했던 연정인을 만나다

당초 인터뷰에는 한나라당 공성진 동문, 통합민주당 김현미 동문, 민주노동당 이경자 동문이 예정됐으나, 김현미 의원은 사정상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2007 대선 한나라당 서울 지역 승리의 견인차

한나라당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공성진 동문(72) 인터뷰

대선을 앞두고 어떤 활동을 했나?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과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겸임해 이 두 가지 직책으로 활동했다.

첫째, 당원 모두가 운동을 해 선거기간 동안 서울시 당원이 23만 명에서 54만 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약 200여 개의 이익단체들이 이명박 후보 지지선언을 하도록 이들을 설득 했다. 이번 선거결과 서울특별시에서 이명박 후보가 2등 후보와 145만 표를 약간 웃도는 표 차이를 보이며 승리했다. 이는 전국 표차의 28%에 이르는 것으로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가 이명박 후보의 승리를 견인하는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번 대선은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첫째, 이명박 대세론이 1년 넘게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쟁점이 별로 없었다. 둘째, 후보들 간 정책대결이 없어지고 네거티브 공세가 지속되어 많은 유권자들이 상당히 식상해했다. 셋째, 2등 후보인 정동영 후보가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세력과 호남 세력을 결집시키지 못하여 이들의 기권표가 많았다.

후보자 또한 12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2002년 대선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이번 대선의 후보자 난립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먼저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인 국민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에 승리를 예상하고 출마한 후보는 없다고 본다. 이회창 전 총리의 경우에는 이명박 후보가 네거티브에 의해 낙마하지 않을까 하는 요행수를 기대한 것 같다. 하지만 이 외의 후보들은 금년 4월에 있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혹은 총선 출마자들을 규합하기 위해 출마했다.

이번 선거에서 거둘 수 있었던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권교체라는 국민적 열망을 이루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제는 기존의 산업화와 근대화를 넘어서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다. 선진화를 위한 세계적 추세인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데 CEO 출신인 이명박 후보보다 나은 대안이 없다. 마지막으로 과거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던 지역감정이 많이 희석되었다는 것이다.



연정포커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가?

잃거나 부정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10년이 잃어버린 10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되찾은 것만 해도 큰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는 정책 대결보다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으로 점철됐다는 평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명박 후보를 이기려면 각 후보들이 자신의 지지 세력을 결집한 다음 이명박 후보의 지지 세력을 분산시켜야 했다. 그러나 정동영 후보의 경우, 전통적인 지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세력이나 진보진영을 결집시키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문국현 후보와도 통합을 이룰 수가 없었다. 또한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선언으로 국민적 관심이 갑작스럽게 이회창 후보에게 몰리게 됐다. '이회창 후보가 얼마나 보수



세력을 분열시킬 것인가'라는데 모든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선거구도가 '이명박 대 정동영'이 아니라 '이명박 대 이회창' 즉, '보수 대 보수'의 구도가 되었기 때문에 정동영 후보가 큰 힘을 쓰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달라질까? 일각에서는 토목분야에만 예산이 집중되었다는데?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목표로 정부부처를 효율적으로 재편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구도가 될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의 국가부채가 380조 정도 된다. 방만한 재정을 줄이는 정부운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한미동맹, 한일동맹과 같은 전통적인 우방과의 동맹 체제를 복원시켜 국제공조를 우리의 생존 외교 전략으로 삼을 것이다.

예산이 토목건설에만 집중되었다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이다. 대운하사업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운하사업은 민간자본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국세는 한 푼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일단 공천을 받아 재선을 하는 것이 목표다. 정치학과 미래학을 20년 동안 가르친 교수로서 18대 국회에서 이론과 현장을 접목시켜서 시너지를 만드는 정치를 하고 싶다.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가능성은 많지만 급선무는 다음 총선에서 서울시장위원장으로 서울의 48개 광역을 모두 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원으로 채우는 것이다. 지금은 한나라당이 17석을 점하고 있는데, 오는 총선에서 48석 전부를 한나라당이 점할 수 있도록 좋은 후보를 공천하고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후배 연정인들에게 전하는 말이 있다면?

지난 10년 동안 제대로 된 정치가 없었다. '정치'는 이해의 적용이고 자원의 균분인데 그 동안 이념 간,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편 가르기 식 정치를 해왔다. 이런 정치는 국민들의 정치만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뺄셈의 정치가 아니라 덧셈의

정치를 해야 한다. 강남과 비강남으로 편을 가를 것이 아니라 전 도시를 강남이나 서울처럼 만드는 덧셈의 정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우리 후배들이 덧셈의 정치, 통합의 정치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 장미 기자

대선 결과 겸허히 받아들이되, 다시 한 번 민중의 선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경자 동문('84) 인터뷰

이번 대선에서 어떤 활동을 했나?

나는 당내 경선에서 권영길 후보가 민주노동당의 후보로 결정되는데 주력했으며,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는 현장의 노동자들이 민중 후보이자 노동자 후보인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했다.

이번 대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대통령 선거라는 게 본디 국민들의 삶의 어려움을 해소할 지도자를 뽑는 게 목적인데, 초반부터 이명박 후보의 대세론이 굳어지면서 대통령 선거 투표를 통해 자신의 삶을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한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했고 이것이 낮은 투표율로 이어졌다. 정치 일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가 팽배해있기도 하다. 물론 권영길 후보마저 국민들에게 민중의 대변자이자 책임자로 부각되지 못한 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적으로 돌아볼 부분이다.

이번 선거의 성과라면 무엇일까?

내가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을 벌써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권영길 후보가 3%대의 득표를 한 것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국민들이 당장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민주노동당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



를 제대로 결합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냉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가장 큰 수확은 당 활동, 민중운동, 노동운동 진영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요구에 보다 천착하고 보다 일상적인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점을 자각한 것이다. 또 하나는 IMF 이후 심화되고 있는 경제 문제나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주길 원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들이 그러한 요구를 실현할 인물로 이명박 후보를 선택한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프다.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았어야 하는데, 미디어가 부풀려 놓은 이미지에 현혹됐다. 결국 이명박 정권 동안에는 사회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선거가 정책대결이 아닌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으로 점철됐다는 평이 있는데?

한국의 대선은 늘 정책보다는 인물 중심, 이미지 중심으로 치러졌는데 이번에는 더더욱 정책대결이 실종됐다. 이는 실제 '비방'의 대상인 이명박 후보가 자초한 결과다. TV토론도 지정된 것만 하고, 정책토론



연정포커스

에 소극적이었다. 때문에 국민들이 이명박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판단할 수 없었다. 그리고 '비방'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명박 후보가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한 정확히 해명하지 않아 생긴 문제다. 공중파에서 보도한 자료도 있고, 강의 동영상도 있었는데 이를 모두 부인한다면 그의 현재나 미래는 어찌 믿을 수 있겠나? 이는 이명박 후보에게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는 말이며, 이 때문에 초래한 사태이기에 '비방'이라 할 수 없다. 국민들은 판단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명박 정권 5년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2007년 한해 노동자·민중 운동 진영의 초미의 관심사는 <한·미FTA>였고, 한국경제의 대미예속성의 심화라는 점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투쟁했다. 지금 <한·미FTA>가 국회에서 비준이 될 분위기고, 그러면 1997년 IMF 이후로 심화된 사회 양극화는 가속될 것이다. 이제 겨우 인수위 시절인데도 한반도운하나 영어몰입 등의 정책을 독단적으로 강행하려는 것을 보면 어떤 기대도 걸 수 없다고 느껴진다. 지금까지 그나마 진보적으로 해왔던 여성가족부 문제나 통일문제 등에서도 이를 되돌리려는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정책이 나오고 있다. 당선되고 나서 이명박 후보가 만나는 사람들을 봐도 알 수 있다. 그들의 눈에는 노동자와 민중이 없다. 관심 밖이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사회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내가 속한 노동자·민중 운동 진영에서 보면 이명박 정권과 대결, 대립은 불가피한 것이다.

향후 계획은?

일단 나는 이번 총선에 후보로 나가지 않는다. (웃음) 나는 민주노동당이 이명박 정권 시대의 민중의 삶을 대변할 유일한 정당이라 생각하고 확신한다. 지금 우리 민주노동당이 분당 사태의 몸살을 앓고 있는 있으나 민주노동당에 대한 나의 확신은 변함이 없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들이 다시 한 번 민중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살고 있는 서대문(을) 지역구에서 후보 당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대다수 노동자들의 문제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민주노총을 강화시키고,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을 지원하는 데 역할을 할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내가 입학할 때의 1984년 연세대학교 교정에는 '진리, 정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의 외침이 교정을 뒤덮었다. 많은 친구들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자기 어깨에 올리고, 자기 고민의 큰 범주로 해서 실천하는 지식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 나는 후배들이 이 사회에서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다. 1984년도에는 '진리와 정의'를 실현하는 삶이 가장 멋지고 가치 있는 삶이라 생각했다. 요즘 취직도 잘 안 된다고 하고,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많이 되겠으나 한 생을 살고 가는 삶, 돈을 중심으로 살기 보다는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길에 우리 청년들이 함께 나서 줄 것을 기대하고 싶다. 그러한 청년들의 삶이 있다면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사회는 반드시 변화할 것이고, 우리 후배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박세희 기자



연정 외국인 학생 3명이 밝히는 “We love 연정!”

“채넌나드미드, 아메모리 슈지, 만구모...”

교수님이 출석을 부를 때면 들려오는 외국인 학생들의 이름이 이제 낯설지 않다. 수업뿐만 아니라 연고전, 개강총회와 같은 행사에서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는 그들의 모습은 어느 연정인 못지않다. 그들이 연정 공동체에 느끼는 친밀함은 어느 정도일까? 그들이 바라보고 또 생각하는 연정은 어떤 모습일까? 이들의 생생한 의견을 담아봤다. 참석자는 류리엘 에강(가봉), 아메모리 슈지(일본), 조연덕(중국) 씨로 3명 모두 04학번이다.

“가족의 영향으로 한국에 와” ... “어학당을 시작으로 연정에 입학”

진행자(조진형) : 처음 한국에 오게 된 경로, 그리고 연정에 문을 두드리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아메모리 슈지가 생각하는 연정은 “夢”이다. (꿈이란 뜻. 일본식 발음으로 ‘유메’)
※추천 수업 : <현대국제정치사>(김명섭 교수)

슈지 :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외교관 이셨는데, 한일 관계 발전에 힘을 쏟던 분이셨죠.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으려면 제가 우선 한국에 대해 알아야 했어요. 5년 전 한국으로 처음 유학와서 서강

대 랭귀지 스쿨을 다니게 됐어요. 졸업한 후에는 지인으로부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가 한국에서 평판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특히 교수진이 마음에 들었어요.

연덕 : 2002년에 연세대 어학당을 시작으로 처음 연세대와 인연을 맺게 됐어요. 2003년까지 다니고 이후 연대에 합격했죠. 사실 특별하게 연대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정치에 관심이 많았어요.

에강 : 2000년부터 3년 동안 서래 마을의 프랑스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태원에서 만난 한국 친구 덕분에 연세대를 알게 됐고, 그 친구가 도와줘서 연세대를 지원하게 됐어요. 한국어를 잘 몰랐었는데 지원서까지 번역해줄 정도였죠. 정외과를 지원하게 된 건, 우선 아버지가 외교관이라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마가렛 대처를 존경하구요.

“어려움을 딛고 점차 연정인이 되었습니다.”

조 : 정외과에 대한 첫 인상이 궁금해요.

에강 : 1학년 때 한 지도교수님께서 “한국 말 잘하니?”,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됐니?”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분 나름대로 걱정스러우셨겠지만 적응하기 힘든 저에게 그 질문조차도 부담스러웠어요. 모든 수업도 한국어로 진행해서 따라가기도 힘들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카라카, 연고전도 참여할 만큼 연정인 다 됐죠.

연덕 : 처음 정외과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들의 강의 형식이 좋아서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저는 어



연정포커스



조연덕= 江 (한석희 교수님 이 자주 하시는 말씀. 연정은 강물과 같아서 중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연정공동체는 동문들이 끈끈히 연결되어 흐르는 집단이라고.)

※추천 수업 : <동아시아국제관계사>(김기정 교수), 한국과 중국의 역사, 연세대의 역사까지 알 수 있는 수업.

학당이 그리워요. 그 땐 학점 관리도 안하고 놀았었는데, 술도 잘 먹으러 다녔죠.

슈지 : 처음 1학년 때 이기택 교수님의 <국제관계론>이 생각나요. 일본어로 질문했는데 대답을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지요. 3학년 때부터 정의과 수업을 많이 들으면서 더 정이 들게 됐어요. 시야가 넓어지는 것도 느끼고요. 그럴 때면 1학년 때 이기택 교수님과 의 만남이 정말 값졌던 것 같아요.

“연정수련회 기억에 남아” “나배도, 지리산에서 많은 추억”

조 : 연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을 한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연덕 : 뭐니 뭐니 해도 연정수련회지요. 학우들과 함께 밤도 새고 외국인이었던 저에게 이질감 없이 대해주던 그들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예강 : 이신행 교수님과 함께 나배도를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내가 연정이라는 소속감을 들게 해주셨던 분이었죠. 그 때 그룹을 수시로 바꾸면서 토론을

하던 기억이 생생해요. 한국인 친구를 처음 만난 계기였죠. 특히 그 견학에 일본인 학생들도 다 같이 가서 적응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슈지 : 이신행 교수님 수업에서 지리산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시민사회운동’이란 수업이었는데 토론 중심으로 진행됐죠. 그 일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김명섭 교수님의 ‘현대국제정치사’ 수업도 많은 추억이 됐습니다. 그 수업에서 일본 역사부분이 나오면 교수님이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대답을 잘 못해서 부끄러웠던 적도 있어요. 그 이후로 일본사를 다 공부하게 됐습니다.

“학과 수강 시스템 보완돼야” ...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학과 행사 마련해야”

조 : 마지막으로 연정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슈지 : 수강신청 때 어려움이 많았는데 수강신청 인원을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학생회도 행사에 외국인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꼭 보면 관심 없는 학생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 학생들이 이질감을 겪지 않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접근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연덕 : 학생 수에 비해 수업 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원하는 강의를 듣지 못했을 때 참 아쉬웠어요. 그리고 연정 학생들과 친해지지 못한 것도 그래요. 조모임 후 서로 연락을 잘 안 해서 친해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예강 = Mbolu (가봉에선 40개 언어가 쓰이는데, 이 말은 40개 언어 공통이다. "안녕하세요"란 뜻)

※추천 수업 : <한국의정치경제>(이연호 교수), 이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면 외국인 학생들이 좋을 것 같다고.

예강 : 연정수련회가 없어져서 아쉬워요. 더 많은 교수님들과 만날 기회가 없어졌잖아요.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의 숫자도 적고 무엇보다 저 같은 외국인을 위해 영어 수업이 더 많이 개설돼야 할 듯해요. 2007년 1학기에는 영어 수업이 4개 있어서 그걸 듣고 한국어 수업 하나를 들어 수월했는데, 2학기 때는 영어 수업이 2개 밖에 개설이 안 돼서 수업 듣는데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프랑스에서는 같은 수업이 다른 선생님, 다른 시간에 개설돼서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한 과목을 들으려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어요.

그리고 연정에서 금강산을 다녀오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정말 좋았어요. 이전에는 그런 시도가 없었어요. 그런 모임을 자주 추진하면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한국 문화도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번 대담은 연정에 대한 외국학생들의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들이 털어놓는 연정 이야기는 여러모로 우리가 연정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던 기회였다. 이제 얼마 후면 08학번이 들어온다. 그 중 얼마나 많은 외국인 학생이 연정의 문을 두드릴지 모른다. 이와 관련해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몇 가지 숙제를 남겨준다. 수강신청 인원 부족, 언어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외국인 학생들이 연정을 찾고, 그들이 연세의 이름을 가지고 모국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같은 연정인이 큰 보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적에 상관없이 하나로 뭉치는 연정의 앞날을 기대한다.

💡 / 진행 조진형 기자

💡 / 정리 이지혜 기자

불굴의 의지로 한국 교육발전에 힘쓰다

전 교육부 장관 **윤희섭** 동문('53)

연세대학교 교수, 한국정치학회장,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장, 교육부 장관, 신문사 사장, 대학 총장. **윤희섭** 동문을 표현했던 수많은 수식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윤** 동문은 오로지 한국의 교육 발전에 일생을 바쳤다. 현재까지 우리 대학교 이사직을 역임하며 당신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보여 주고 계신 **윤** 동문을 지난 11월 30일 우리 대학교 알렌관에서 만나 봤다.



윤희섭 동문('53)

성장의 밑거름

대학 4학년 2학기, 졸업을 앞둔 겨울이었다. 내가 학교생활에 적극적이고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았음인지 육군사관학교 정치학과 교관

으로 추천을 받았다. 육사에서 총장 추천을 필요로 했으나 당시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께서 외국에 출장 중이셔서 총장직무대행인 외솔 최현배 박사로부터 추천을 받게 되었다. 최현배 선생과 아침 9시에 약속을 했지만 내가 약속장소에 도착한 시간은 9시 15분. 땀 흘리며 뛰어 들어갔을 때 선생님께서는 벼락같이 화를 내시며 “지난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망한 이유가 약속을 안 지키고 게으른 너와 같은 조상들 때문이었다”며 돌아가라고 호통을 치셨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그 때 흘린 눈물은 감동의 눈물이자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나는 대학 재학중 어느 누구로부터도 꾸지람을 들은 일이 없었는데 졸업을 눈앞에 둔 나를 오직 그 분만이 진정으로 꾸짖으며

약력	1953	연희대학교 입학	1990	교육부 장관
	1968, 1974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과장	1992	서울신문사 대표이사 사장
	1975	연세대학교 학생처장	1994	건국대학교 제 14대 총장
	1981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1997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1982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장	1999	대통령직속 반부패특별위원장
	1985	한국정치학회장	2001	호남대 제6대 총장
	1988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장	현	연세대학교 이사

올리셨다. 요즘의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자꾸 하는데 이런 것은 학생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한 분의 은사는 내가 대학원에 입학한 후 원우회(학생회)를 창설해 초대 회장이 됐을 때 대학원장이셨던 한결 김윤경 선생님이다. 당시 대학원 졸업의 필수 조건으로 ‘국어’ 시험이 있었는데 졸업논문을 통과해도 국어시험 때문에 졸업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 원우들의 원성이 높았다. 이를 시정하고자 김윤경 원장님을 면담했는데, 그 때 들었던 말씀을 잊을 수가 없다. “윤군, 잘 듣게. 대학원 학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학생회장의 의견과 대학원장의 의견이 끝내 다를 때, 대학원은 누구의 뜻에 맞춰서 운영해 나가야 하나?”

나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일어나서 절을 하며 다시는 그런 말씀 드리지 않겠다고 약속드렸다. 그분의 말씀이 옳았기 때문이다. 학사는 우리 학생들 뜻에 따라서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이를 모든 단과대학 대표들에게 설득해 이 문제에 관해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최현배 선생님과 김윤경 선생님의 가르침은 내 교단생활 한 평생을 통해서 한결같은 길잡이가 됐다.

대학생활의 추억

1953년 당시 존재했던 학도호국단에 대한 반학도호국단 운동이 학생사이에서 일어나면서 정부는 학생회 조직을 일체 금지시켰다. 학생활동을 하고자 한 학생들은 학도호국단 위원장이 되거나 순수민간학생운동으로 방향을 돌려야만 했다. 우리는 순수민간학생운동에 동참했다. 당시에는 학생회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단과대학별

로 ‘문우회’, ‘이공학우회’, ‘상경연우회’, ‘정법학회’ 등의 이름을 붙인 민간 학생회를 만들어 활동했던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절묘하게 법망을 뚫고 나갔다고 하겠지만 나는 우리들의 끓어오르는 열정의 산물이었다고 생각한다.

화백잡지를 창간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선후배간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학우들과 뜻을 모았다. 화백이 곧 정의와의 역사다. 백낙준 박사께 ‘화백’이라는 제호도 받았고 선배들을 모시고 좌담회도 열었다. 그때가 지금도 그립다.

연정에 몸담았던 30여 년의 교직생활

무엇보다 먼저 나는 연세대학교와의 관계가 어느 누구보다도 특별했다고 자부한다. 학생시절에는 단과대 학생회장으로서, 대학원 시절에는 초대 학생회장으로서 4.19를 겪었다. 하루 24시간을 학교에서 지내다시피 했다. 나는 연세를 너무나 사랑했다. 박사학위과정 입학 후 12년 만에 연세대학교 정치학박사제 1호의 영예를 얻었다.

내가 대학에 다닐 당시에 학교에서 배운 정치학은 다분히 일본의 영향이 컸다. 일본의 정치학은 독일의 국가학에 영향을 받은 것이고 국가학은 공법학적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 선배들이 이를 일본에서 그대로 수입했기 때문에 해방직후의 한국 정치학은 헌법학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나는 1968년에 학과장이 되면서 재래식 커리큘럼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중 하나로 박정희 정권하에서 금기시되었던 ‘공산주의론’이 전국 최초로 개설되기도 했다. 공산주의를 전파하려는 것으로 오해 받아 곤욕을 치렀지만 과목명을 ‘공산주의 이론



비판'으로 바꾸고 당시 경찰대에서 공산주의에 대해 가르치던 '전석린' 교수를 초빙함으로써 최고의 인기 강의를 만들 수 있었다. 소련 정치론도 비슷한 사정이었다.

교과목을 현대식으로 수정하고 미국식 정치학 프레임 속에서 재조정하면서 그 열정을 잠재울 수가 없어 나는 '한국 대학의 정치학과 교과목의 문제점'을 1973년 한국정치학회총회에서 발표했다. 그 이듬해에는 정치학과 모델 커리큘럼을 만들어 역시 총회에서 발표했다. 우리나라 정치학과 및 외교학과의 커리큘럼을 새롭게 만들고 이를 전국에 전파하고 싶었던 것이다.

당신을 정의했던 수많은 수식어

연세대학교 졸업생으로서는 처음으로 1985년 한국정치학회장에 선임됐다. 보기 드물게 무투표 당선이었다. 회장 재임 시절, 한미합동학술회의와 아시아·태평양 정치학회(APPSA)의 서울 개최 및 세계 정치학회(IPSA)에의 진출 등의 준비를 위해 숨 가쁘게 활동했다. 나는 최초의 비서울대 출신 회장이란 점에 대해서도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내가 비서울대

출신으로서 처음으로 회장이 된 이후 회장 총원의 지평이 급속히 넓혀진 게 사실이다.

한국교총회장의 직분을 맡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다함없는 충성을 바쳤다. 그 때 역점을 두었던 두 개의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다. 한국교총회장으로서 나 자신이 제안한 후 장관으로 들어가서 내손으로 완결 지었으니 참으로 절묘한 인연이다. 또 하나 역점을 두었던 사업은 우수교원확보법이었는데, 이는 협의만 진행했을 뿐 결실은 보지 못했다. 지금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퇴임 후 13,000명의 전국교육대표자 앞에서 공로패를 받은 것은 나로서는 큰 영광이었다.

다음으로 교육부장관으로 취임한 것도 연세대학교 졸업생(세브란스제외)으로서는 내가 처음이다. 1990년 12월 27일 제31대 문교부 장관으로 임명돼 1991년 1월 1일자로 초대 교육부 장관이 됐다. 그날부터 1년 1개월 후, 즉 1992년 1월 22일 경기도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교에서 후기대학입시 문제지를 도둑맞은 일로 내가 책임을 지고 그 직을 사임하는 날까지 진정코 나는 열과 성을 다하며 한줌의 부끄럼 없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이 나라의 교육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했노라고 지금도 자부하고 있다. 국제교육진흥원 신설, 특수교육과 유아교육의 진흥, EBS 출범, 한-소 교육교류협력체계 개척, 대학 자율화와 고교교육 정상화 등 교육개혁사업의 추진에 심혈을 기울였다. 회상해보면 짧은 세월에도 보람도 아쉬움도 많았다.

이어서 서울신문사 대표이사 사장 재임 시절에는 지극히 짧은 기간이었으나 만리장성을 쌓는 심정으로 서울신문의 환골탈태를 위한 몇 가지 쇄신작업에 몰두했었다. 건국대학교 총장직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는 28년간이나 교수로 봉직하고 13년간이나 보직

교수로 심혈을 기울였던 연세대에 미안할 정도로 나는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 몇 배의 정열을 바쳐 건국대를 섬겼다. 그랬던 사실과 추억이 내게는 커다란 보람이 돼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다. 그 곳을 떠난 지 10년이 되었건만 아직도 그쪽의 교수들이 나를 찾아 주는 것은 아마 그 때문일 것이다. 건국대를 떠나면서 받은 교수협의회와 직원일동으로부터 받은 감사패는 가보가 되었다.

리더십 철학

개개인 모두가 어느 자리에 위치하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에 진심으로 충성을 다할 때 그가 가진 역량이 목표를 향해 결집될 수 있다. 리더십은 추종자들의 존경과 신뢰에서 솟아난다. 그러므로 각자의 자리에서 털끝만한 사심도 없이 모든 희생을 감수하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만이 올바른 리더십 구현의 첫 번째 요건이며 그러한 리더만이 정당성과 설득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바람직한 리더십은 창의성과 합리성을 지니는 것이다. 우리들의 리더와 발전 저력을 그러한 전제조건 위에서 발굴해내고 가동시킬 때 우리 대학은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 나는 지금 발전적 대학 문화의 창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제도를 개선한다 해도 대학문화가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그제도 개선은 의미가 없어진다.

세 번째로 분명하고 명확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바람직한 전통을 이어나가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분별력과 결단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비전의 리더십은 상황변화

에 따라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유연성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적응능력을 갖고 살아남을 뿐 아니라 남보다 앞서 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적 리더로 성장하는 것이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리더십은 비기독교적이다. 섬기는 리더십이야말로 연세대학교가 교육시켜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

후배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매순간을 열심히 살아라.’ ‘작은 일에 충성해라.’ 허황된 꿈을 꾸며 노력 없이 꿈이 이뤄지길 바라면 안 된다. 포부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작은 사행일지라도 빈틈없이 충성을 다해야 한다.

윗사람은 유능하고 충성스럽고 정직한 아랫사람을 찾는다. 충성스럽지 않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허황된 꿈만 좇으며 헛발질을 하게 되어 있다. 실력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젊은 시절, 포부를 지니되 공염불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섬기는 지도자가 가야 할 길이며, 연세대학교의 존재 이유이다.

기자와의 약속 시간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알렌관에 들어선 윤 동문으로부터 이미 자기 관리에 철저한 분이심을 느낄 수 있었다. 동문과의 인터뷰를 끝내며 험난했던 시대에 많은 분야에서 ‘최초’라는 수식어를 따낸 당신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교육 발전에의 불굴의 의지와 연세에 대한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 / 나은정, 박세희 기자

연세 홍보의 제일선에 서다

연세대학교 홍보대사 대표 **문흥렬** 동문('61)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꽃이 되길 원한다. 그러나 요즘의 이름들은 자신이 호명되기만을 수줍게 기다려서는 안 된다. 수많은 몸짓들 중 선택 받아 꽃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다.

바야흐로 자기 PR의 시대다. 급변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대학 역시 자기 PR에 신경 써야 한다. 올해 연세대학교 홍보대사 대표로 위촉돼 학교 홍보의 최일선에서 힘쓰고 있는 HB 코퍼레이션 그룹 회장 문흥렬 동문('61)을 만나봤다.



문흥렬 동문('61)

- 졸업 후 모교 일을 돕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모교 일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요?

연세대학교 졸업 후, 무역업에 종사하는

동문들이 '연무회'를 만들었는데 내가 초대 회장을 맡게 됐다. 연무회 활동을 하며 모교에 보탬이 되어겠다는 생각을 했다. 연무회는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갖

는데, 그 회원들과 함께 '월 1만원 연세사랑기금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

- 월 1만원 연세사랑기금 모금 운동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추진하게 되셨습니까?

월 1만원 연세사랑기금 모금 운동이란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매달 1만원씩 혹은 그 이상을 기부토록 올해 초부터 학교에서 시행한 프로그램이다. 요즘 커피전문점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도 7~8천원인데, 우리 동문들이 차 한 잔 값이 없거나 그 돈이 아까워서 기부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계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기금모금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동문은 3.8%

뿐인데, 미국 프린스턴대학교의 경우 동문의 68%가 기부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참여율을 50%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홍보대사로서의 첫 목표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학교 발전에 동문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연세사랑기금 모금 운동 외에 홍보대사로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활동이 있으신가요?

지난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일본의 오사카, 동경, 도치기현을 방문해 재일교포들에게 연세대학교 입학에 관한 홍보를 하고 돌아왔다.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교포는 60만 명으로 인력시장이 무궁무진하다. 재일동포계의 우수한 인재들을 우리대학교에 유치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다.

재일동포 1세대는 역사적으로 희생된 세대다. 다른 나라는 이런 경우 본국에서 포상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해외동포에게까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대로라면 동포사회는 일본사회의 차별에 부딪혀 조직이 축소되고 결국은 없어지고 말 것이다.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뿐이다. 연세대학교가 제3세대, 제4세대를 위한 교육정책을 실시한다면 재일동포들이 글로벌 교육을 통해 교포사회의 리더가 됨으로써 한일 양국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학교 홍보대사에 위촉 되셨는데 앞으로 학교의 홍보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학교의 홍보가 시대의 변화 속도에 비해 너무 정적인 것이 아닌가 한다. 사실 학교 조직은 매우 비

대하며 학사일정에 얽매어서 융통성 있게 변화하기가 힘들다. 효율적인 홍보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많은 혁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새로운 홍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일본의 재일동포 사회에 언더우드학부와 한국어학당, 기숙사 시스템 등을 설명했더니 학부모들의 호응이 좋았다. 한국어 문화권 부모님들의 희망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측에서 지평을 넓히는 노력을 이어나가야 한다. 홍보대사라는 이름을 달고는 있지만 동문으로서 너무 과도한 개입은 이치에 맞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저 서포터가 되고 싶다.

문흥렬 회장은 LG상사(구 반도상사)에서 6년 간 근무한 후, 1973년 HB 코퍼레이션(구 홍보실업)을 설립해 HB 그룹으로 키웠다. 현재 HB 그룹은 무역 회사 HB 코퍼레이션, 창업투자회사 튜브 인베스트먼트, IT 제조기업 알트론, 영화·드라마 등을 제작하는 HB 엔터테인먼트 등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인 문흥렬 동문에게 묻는다.

- 소위 '잘 나간다'는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실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당시의 상황은 어땠나요?

30대 초반의 가장으로서, 또 전도유망한 기업의 사원으로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그러나 모험심이 강했고 체력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다. 더욱이 그 분야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

처음엔 전문분야였던 무역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점차 엔터테인먼트 분야까지 확장했다. 다른 분야 개

척 당시에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데 IT 산업을 시작할 때는 두 시간씩 자면서 원서를 펼쳐 놓고 공부했다.

- 현재 '88만원 세대' 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 세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내가 살았던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여러분들은 행복한 시대에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연세대학교 정외과 졸업생에게는 어떤 기업체든지 문이 열려 있지만 당시에는 데모만 하면서 기존의 가치에 반항한다는 인식이 강해 입사시험의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 졸업 후 생각할 수 있는 길은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그리고 언론사뿐이었다.

'88만원 세대' 는 여러분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는 노력하지 않는 4~50%의 20대에 국한된 이야기이지 정외과의 인재들에게는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고 믿는다.

- 경영철학이 있으신가요?

'꿈을 가져라'. 한 가지 꿈을 정하고 그것을 꾸준히, 묵묵히 이어나가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체력, 실력, 노력이라는 세 요소가 기본이다.

사람에게는 일생에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한다. 누구나 자신에게 투자하고 시기를 기다리면 꼭 그 기회가 오게 돼있다.

1961년 우리대학교에 입학해 1966년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문흥렬 동문은 졸업후에도 꾸준히 학교와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문 동문의 남다른 학교 사랑에 대해 들어봤다.

-선배님이 생각하시는 정외과는 어떤가요?

정외과는 어떤 분야든지 일인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정외과 선배들은 제약, IT, 엔터테인먼트,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후배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학문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꿈만 크고 실력이 없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일러두고 싶다. 정외과에서 배우는 과목들은 실력이 밑바탕되지 않으면 모두 뜬구름 잡는 공허한 이야기로만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창시절에는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이스라' 라는 동아리에서 활동했다. 일본 국제기독교대학교의 일본학생 50명과 이화여대 학생 30명 그리고 연대 학생들이 강원도에 위치한 풍림고아원에 막사를 지어 주는 등의 봉사활동을 했다.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아련하다.

-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어떤 일을 가장 하고 싶으신가요?

하루 네 시간만 자면서 도서관에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수백 권 읽고 싶다. 과거에는 실천은 없고 생각만 너무 많았다. 실력을 쌓지 않고 고민만 했던 것이 후회된다. 대학교 입학 후 잔머리만 굴렸다. 그래서 사람은 어느 정도 우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목표를 정하면 우직하게 밀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 10년 후에 커다란 재목이 되기 위해서는 실력이 중요하다.

-정외과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첫째로 꿈을 크게 가져라. 둘째, 건강을 지켜라. 셋째, 실력을 키워라. 마지막으로 노력하라. 운동은 따



로 시간을 내서 하기보다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 체력이 있어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체력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대학생들은 영어를 모국어처럼 해야 한다. 그 외에 중국어나 스페인어 등 제2외국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 노력을 강조한 이유는 우리대학교 학생들의 특징 때문이다. 연세대학교 출신들은 머리는 좋은데 추진력이 약한 것이 흠이다. 체력을 보강해 꾸준히 지속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학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시기가 인생에서 가장 머리가 맑은 시기다. 훌륭한 인재가 대학교에 들어와서 생각만 많이 하고 실천은 못한 채 졸업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후배들이 다부진 각오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각자 하나씩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그것이 초등학교 때 발현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뒤늦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노력, 그것이 바로 재능이다. 힘든 일이 있어도 낙망하지 말고 욕심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삶을 길게 보며 꾸준한 자신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나처럼 시골에서 올라온 촌사람도 이렇게 해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선택받은 사람들임을 잊지 말라.

-동문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세계 100대 대학은 총장이나 교수 또는 교직원들의 노력으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외과의 우수한 인재들이 자기 일이라 생각하고 자기 위치에서 학교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동문들이 힘을 합쳐야 세계대학으로서 연세가 우뚝 설 수 있다.

현실적인 조언은 그 가치가 매우 크다. 고민이 너무 많은 나머지 도무지 실천하지 못하던 대학생 중 한 사람으로서 인터뷰 내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현재 대학생들의 치부에 매섭게 칼을 대신 선배님의 예리함에 놀라울 따름이었다.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연정 후배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선배님의 친절에 감사드린다.

💡 / 나은정, 기예진 기자

여성계의 부드러운 리더십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이연주** 동문('79)

바야흐로 여성의 시대다. 긍정적으로는 '알파걸, 알파우먼' 부터 부정적으로는 '된장녀' 까지 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단하다. 이런 지금, 우리 연정의 여선배들은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실까? 초겨울 바람이 매섭게 옷깃을 파고들던 날, 신천동에 있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무실에서 이 단체의 회장으로 계신 이연주 동문을 만나 봤다. 이연주 동문은 2008년 5월에 있을 우리 대학교 재상봉행사(Homecoming Day)의 전체대표이기도 하다.



이연주 동문('79)

- 졸업하신지 30년이 다 돼 갑니다. 선배님의 대학생살은 어떠셨나요?

내가 입학하던 때는 사회가 참 불안하던 시기였어요. 입학하던 79년에는 10.26

사건으로 휴교를 했고 그 다음해에는 5.18민주화 운동을 거쳐 민주화의 봄 등 참 많은 사건이 있었지요. 그 당시 대부분의 학생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민주화를 위해 데모도 하고 늘 최루탄 가스 냄새를 맡으며 등교하고 그랬어요. 사회가 불안하다보니 휴교가 잦아서 공부할 시간도 적었고 졸업여행이나 수학여행 같은 것도 갈 수가 없었어요.

우울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낭만이 있었어요. 그 와중에 축제도 했으니까요. 남자들은 양복입고 여자들은 양장입고 축제를 했는데 우리과는 당시에 여학생이 거의 없어서 내가 파트너 없는 남학생들을 불러 같이 잔디밭에서 놀고 그랬어요. 그 때 함께 했던 친구들하고는 아직도 모임을 이어가고 있죠.

- 현재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 회장으로 계신데 어떻게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내가 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생 가운데 미취업자가 나 혼자였어요. 아무래도 내가 여자였다는 사실이 취직을 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나는 장학금도 받을 만큼 공부도 잘했거든요.

그러다가 지인의 도움으로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때도 여성으로서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보좌관이 여자인 내가 일도 참 잘하고 하니까

곱게 보지를 앓더라고요, 굶은 일도 더 많이 시키고... 그래서 못 견디고 나와서 우리 학교 교직원 시험을 봐서 합격했지요.

그리고 나서 당시에는 한직이었던 여학생처를 자원했어요. 당시 이양자 교수님께서 처장으로 계셨는데 함께 여학생을 위한 일을 많이 했어요. '생활과 교양'이라는 여성학 강의도 개설하고, 여학생들을 위한 취업카드를 만들어 취업정보도 제공하고 면접을 대비할 수 있는 강좌도 만들었어요. 그 후 정부 사무관 특채 모집이 있었는데 내가 학생처장님 추천으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근무하게 됐어요. 이런 경험이 모두 내가 여성과 관련된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 인생의 가장 바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30대에 프랑스 유학을 떠나셨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현대사회연구소에서 1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했는데 그 때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고 결혼하면서 남편이 있는 프랑스로 가게 됐어요. 프랑스에서는 박사과정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돌아보고 새로운 인생관을 갖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5공 청산과정과 절대 권력자가 무너지는 것, 사람들의 배신 등을 지켜보면서 많은 갈등을 했어요.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보고 겪으면서 나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프랑스에서 자유롭게 공부하고 여행하면서 '물처럼 살자'는 새로운 인생관을 갖게 됐지요.

-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인가요?

세계 최초로 여성유권자연맹이 미국에서 1920년에 만들어졌고, 이 단체의 회장이 1957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유권자연맹 창립을 위한 준비 작업이 이뤄져 1969년에 우리 단체가 만들어졌지요. 우리단체는 정치관련 최초의 여성단체이자 전국 155개의 지부를 둔, 단일단체로서는 가장 큰 규모의 단체예요.

우리 단체는 이름 그대로 '여성유권자운동'을 하는 단체예요. 유권자의 대표적인 역할 3가지를 든다면 지도자를 길러내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단체는 이를 토대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요.

첫째, 여성 지도자를 길러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아주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우리 단체 출신이에요. 리더십 교육과 함께 지방선거에서 차세대 여성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어요. 둘째, 좋은 지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공명선거실천시민선거협의회'의 공동대표단체로서 선거 때마다 공명선거운동과 함께 유권자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성 있는 유권자로 거듭나기 위해 지방의회와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실시해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의원에게 수상을 하기도 합니다.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이 있을 때는 언제인가요?

내가 회장이 되고 나서 가장 열정적으로 한 일이 바로 여성을 위한 리더십 교육이에요. 우리 여성들이 사회의 지도자로 성장하려면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리더십 교육을 시작했는데 항상 첫 강의는 내가 해요. 강원도



태백이든, 경남 거제든 대도시뿐만 아니라 시골 어디든지 달려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 때마다 사람들이 농번기 햇볕에 그을린 얼굴을 하고 눈을 반짝이며 나를 볼 때 정말 몸에 전율이 일어. 부족한 강의지만 내가 전하는 것이 그분들께 도움이 되는 동시에 나도 많이 배웁니다. 그런 지도자 과정이 참 보람 있어.

- 과거에 비해 여성 지도자가 많이 배출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성이 사회의 리더로 성장하는데 어떤 제약이 있고 또 어떻게 극복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얼마 전까지 가장 큰 제약은 사회적인 의식이었어요. 남성들은 '다른 건 몰라도 정치는 여성에게 내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여성들조차도 '정치 분야는 아직 여성이 진출하기에 이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지난 2004년 17대 총선이 분수령이 됐어요. 여성계의 힘겨운 노력으로 비례대표에서 여성이 50%를 할당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것도 교호순번제로. 당시에 내가 여성계대표로 공청회에 참석했었는데 내가 50%를 주장하니까 모든 비판이 나에게로 쏟아졌던 기억이 나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여성

비례대표 50% 할당제가 도입되면서 약 40여명의 여성 의원들이 국회로 진출했고 지금 성실히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어요. 또한 지난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선전을 하면서 여성이 정치의 중심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의식이 강해졌다고 할 수 있지요.

이처럼 이전까지는 사회적인 의식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고 우리 여성계도 여성 지도자의 수를 늘리는 데만 집중한 것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여성 스스로 준비해 인재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우리 여성들 스스로의 준비는 부족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런 준비작업도 본격화되고 있어요. 우리 단체는 오는 4월 총선에서 여성들이 의회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이후 2년 로드맵으로 2010년 지방선거에서 100명의 여성의원 탄생해 2010년이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의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많은 여성들이 이미 자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성들을 발굴하고, 훈련하고, 조직적으로 돕는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 소식을 볼 연정의 여학생들에게 당부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는 여학생들이 직업으로써 지방선거에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거주 지역에서 봉사활동 등 다양한 단체활동을 하면서 자기 역량을 키우면 충분히 지방선거에 도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구의원에 당선돼 구의원을 한두 번 하면, 그 다음 시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고 물론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도 갈 수 있어요. 이런 코스는 고시를 봐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다 정식코스라고 할 수 있

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단체에서는 이런 취지에서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여대생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졸업 후 지방의회 의원을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나는 정치에 뜻을 두고 있는 학생이라면 고시공부를 하는 것보다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며 즐겁고 보람찬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 선배님은 일반적인 여성 리더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조직을 키워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강한 이미지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여성유권자연맹 회장이라고 하면 강한 이미지의 여성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니까 오히려 더 많은 회원을 모으고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어요. 재상봉 행사의 대표가 된 것도 내가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동문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고 한분 한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니까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있는 그대로의 여성성을 갖고도 충분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우리 연정이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학창시절부터 서로 힘이 되어주고 그 관계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지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면 학창시절부터 친구와 선후배, 그리고 교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 나가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나는 프랑스에서도 세느강을 건너가 문득 교수님이 생각나면 엽서도 보내고 그랬거든요. 이런 작은 관계가 나중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인터뷰 내내 미소와 함께 답해주시는 이연주 동문의 모습에서 어머니와 같은 따뜻함과 푸근함이 느껴졌다. 이런 부드러움이야말로 이 시대 여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리더의 자질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 / 박세희, 장미, 이지혜 기자

자전거, 너는 내 로망

연세대학교 MTB(MounTain Bike + MaraThon Best + Marine Training Best) 동아리(아래 MTB)

회장 **박현우** 학우('0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땅거미가 내려 앉아 어둑해질 무렵 연희관 로비에서 만난 MTB 회장 박현우 학우는 처음부터 기자에게 시원스런 인사를 건넸다. “저녁 식사는 다들 하셨나요? 안하셨으면 함께 식사부터 하는 게 어떨지...” 기자의 식사까지 챙겨주며 부드럽게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그에게서 마치 예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MTB, 로망을 찾아

우리는 저마다 대학생으로서의, 혹은 자유로운 청년으로서의 로망이 있다. 그것은 배낭을 들쳐 메고 떠나는

유럽여행이 될 수도 있고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동아리 활동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희생과 배려를 통해 배우는 봉사의 경험을 의미하기도 한다. 박현우 학우는 대학 4년이라는 결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자신만의 로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야가 어떤 것이든 진정으로 자신이 해보고 싶은 것

에 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로망에 대해 힘주어 말하는 그의 눈빛 속에서 그의 로망이 바로 이곳 MTB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에게 있어 자전거는 자전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는 자전거가 어디든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자 때로는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무한히 달릴 수 있는 ‘탈출구’라고 말했다. 자전거에 대한 로망을 혼자만의 것이 아닌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자 지난 2006년 여름, 현재의 MTB를 만들게 되었다고.

처음 동아리 설립을 앞두고 학우들의 호응이 저조할까 우려했지만 의외로 교내 자전거 동아리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가 많았다고 한다. 통학수단, 대회출전, 자전거 여행 등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한두 명씩 모여 현재 회원은 약 200여 명에 달한다. 이렇듯 대규모로 구성된 MTB는 서울시 소재 대학에서는 유일한 자전거 동아리이자 전국에서 가장 큰 대학 자전거 동아

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전거를 사랑하는 이들의 모임 MTB는 지난 2007 정기 연고전에서는 ‘승리기원 퍼레이드’를 개최해 많은 연세인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MTB는 그가 지은 동아리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전거뿐만 아니라 철인 3종경기의 나머지 종목인 마라톤과 바다수영도 준비하고 있다. 이미 3명에서 10명 정도의 회원은 지난해 열린 각종 마라톤 대회에 함께 출전하기도 했다. 바다수영의 경우는 2008년에 시작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MTB와 시련을 이겨내다.

지난해 7월, 어쩔사리 동아리를 만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불의의 사고로 1년 가까이 입원을 했다. 홍수로 물이 불어난 시민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진흙에 빠졌는데, 자전거를 씻기 위해 들쳐 메다 그만

허리와 목에 급성디스크가 온 것이다. 6개월의 입원에 이은 6개월의 물리치료. 오랜 공백 기간 동안 그는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깨달음과 함께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자전거에 더 애착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동아리를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스스로 성장한 MTB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그.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꾸려나가고 성장시켜준 동아리 회원들을 위해 팀 저지(jersey)를 제작하게 됐다는 그는 “MTB가 지친 마음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동아리 고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저지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 그는 최근 국내 자전거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유명수입품에 의해 독점돼 있을 뿐 아니라 고가인 기존의 자전거 저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MTB 저지는 오른팔에는 태극기가, 왼팔에는 연세마크가, 앞뒤에는 운동주 시인의 ‘서시’와 ‘별 헤는 밤’이 각각 새겨져 있다. “실제로 이렇게 완성된 저지를 입고 해외 라이딩을 나갔던 동아리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욱 연세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개인의 행동거지에 신경을 쓰게 됐다더라”고 이야기하는 그에게서 뿌듯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가 제작한 저지에서 눈에 띄는 것은 운동주 시인의 친필로 쓰인 시가 ‘캘리그래피’(Calligraphy: 손글씨, 핸드레터링 기술)와 된 것이다. 발상은 좋았으나 금전적인 문제와 저작권 문제가 제작에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한다. 다행히 그의 한글사랑과 MTB에 관한 열정으로 많은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운동주 시의 저작권자인 성균관대 윤인석 교수를 설득해 저지



를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탄생된 MTB의 저지는 현재 운동주기념관에 전시돼 있다.

자전거에 관한 당신의 편견 그리고 무관심

“신촌에서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까지 얼마나 걸릴까요?”라는 그의 갑작스런 질문에 기자가 가우뚱하고 있는 새, 그는 “정확히 5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생각은 ‘위험하다’, ‘길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한다. 현재 서울의 자전거 도로는 비교적 잘 갖춰져 있고 계속해서 자전거 도로가 확충되고 있어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를 일상화하려는 실천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그는 학우들의 자전거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교내 제반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교내에 마땅한 자전거 거치대가 없어 도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속수무책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거치대 설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이미 자전거 거치대를 마련해 학생들이 마음 편히 자전거로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그는 거치대 마련을 위해 서울시 담당관과 환경부 사무관 그리고 학교 측과 접촉해 봤지만 미진한 답변만 받았다고 한다. “캠퍼스 내 소음과 공해문제를 유발하는 오토바이의 단계적 철폐를 주장하면서도 대체수단으로써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우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학교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쉽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延政人, 박현우

인터뷰 내내 당차고 시원시원한 모습을 보인 그의 장래희망이 궁금했다. 그는 현재 언론인을 꿈꾸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나라를 위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한다. “정치인이 되면 현재 자전거와 제도적 환경에 대해 갖고 있는 나의 생각들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 믿는다. 인간과 환경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모두가 자각하고 있는 가운데 누군가는 국회에서 그 중요성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한다. 그 역할을 맡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로망을 향해 달려온 그도 어느새 ‘고학번’ 선배가 돼 버렸다.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자 쑥스러워 하며 “연정인으로서 자부심과 큰 꿈을 가지고 학부생활을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대에 무조건적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고, 마음 속에 열정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꿈을 이뤄내기 위해 다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그의 말에서 모험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

“남들과 다른 고유의 색깔을 지닌 연정인이 되자”는 그의 마지막 외침이 소중한 울림으로 가슴 깊이 남았다.

 / 신나리, 이유정 기자

타이완 국제학술회의 참가기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BK21 프로젝트 ‘아시아의 재발견’

최정호(정치학과 박사과정)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BK 21 ‘아시아적 정치학 사업단’은 2008년 2월 14일부터 5박 6일 간 타이완으로 국제 학술회의를 다녀왔다. 사업단장 김명섭 교수님을 비롯하여 장동진 교수님, 최연식 교수님, 차동욱 연구교수님, 그리고 이재현 박사님과 8명의 대학원생이 참석했다. 우리 일행이 처음으로 방문한 대학은 남부의 항구도시 까오슝에 위치한 국립중산대학이었다.

까오슝(高雄) : 국립중산대학(國立中山大學)

국립중산대학은 아시아의 지도자 쑨원(孫文)의 이름을 딴 종합대학으로 현재 450명의 교수와 10,000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교내에 상당한 수의 교환학생과 외국 대학

원생, 방문학자들이 있어 높은 국제화 수준을 느낄 수 있었다.

이튿날 각 대학의 대학원생들은 ‘타이완과 한국의 정치’를 주제로 토론을 준비했다. 학기가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0여 명의 학생들이 토론에 참여해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오후 2시에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타이완 총통선거와 타이완 정치에 관한 Samuel C.Y 교수님의 유익한 강의가 있었다.

셋째날에는 까오슝시립박물관을 방문하여 타이완과 까오슝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타이완의 역사는 명·청조의 교체시기에 정성공(鄭成功)이 섬을 개척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청에 편입된 타이완은 톈진조약으로 항구를 개방하게 되었고, 1895년 청조가 일본에게 패배하면서 함께 일본에 합병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박물관에서는 타이완 역사가 격동하게 되는 현장을 사진과 그림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타이베이(臺北) : 국립타이완대학(國立臺灣大學)

넷째날에는 타이완의 자랑인 고궁박물관을 답사했다. 장제스가 자금성의 막대한 유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중국 대륙보다 많은 전통 유물을 관람할 수 있었

다. 중국의 고전과 전통, 유물의 화려함과 정교함을 동시에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오후 2시에는 타이완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2.28 평화공원’을 방문했다. 2.28 사건은 1945년 일본이 항복하자 중

국에서 건너온 장제스와 그의 군대가 타이완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것이 도화선이 돼 타이완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군부에 저항하던 많은 지식인과 민간인들이 처형된 비극적인 사건이다. 평화공원에 위치한 ‘2.28 기념관’에서 그 당시의 사진, 유물 등을 통해 타이완 근현대사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

2월 18일에는 국립타이완대학을 방문하여 양측의 우의를 다지고, 학술회의를 진행했다. 타이완대학은 일본 식민지 시기 제국대학을 이어 받아 1945년 설립 되었다. 영국 「The Times」의 평가에 따르면 타이완 대학의 정치학과는 세계 50위 이내, 아시아에서는 4



위를 차지하고 있는 명문학과다.

우리는 오전 10시부터 대학원생 학술회의를 진행 했고, 오후에는 정치학과와 Chih-yu Shih 교수님으 로부터 ‘타이완의 중국연구’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들었다. 학술회의가 끝나고 타이완대학교 대학원생 들의 안내로 학교를 둘러볼 수 있었다.

21세기 아시아 시대를 위하여

이번 타이완 학술회의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세계의 명문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시아의 일류대학과 교 류하고 경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사실 지 금까지 세계 일류 대학과의 경쟁에만 몰두하여 나 머지, 아시아 일류 대학들의 정체성과 비전, 국제화 전략에 대해서는 경시했던 경향이 있다. 세계를 상대

로 하되, 아시아 일류대학과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발전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21세기는 흔히 ‘아시아의 시대’라고 한다. 타이완대학교 학생들이 정치학과 건물 입구에 있는 ‘The Asian Renaissance’라는 현판을 보고 아시아의 부흥을 이끈다는 자부심 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업단 일행도 연세대학 교가 ‘아시아의 르네상스’라는 시대정신을 넘어 ‘세 계의 르네상스’를 이끄는 선봉장이 되기를 기원했다.

결망이 희망이 되던 날

제45대 부총학생회장 조울선(’05)

“태안반도 다녀왔지요? 그 곳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나요?” 지난 12월 이틀 동안 수백 명의 학생들과 태안반도 봉사활동을 다녀왔던 일이 다시금 생생하 게 떠올랐다.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지만, 벌써 작년 달력에 남아있듯이 지난 기억 속에 묻혀있었다. 그러 나 언론 속에서 묻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묻히고 말아버리기에는 아직도 태안반도는 기름 오염의 몸 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 많은 이들의 손길이 필 요하다고 한다. 추억처럼 기억 안에 갇혀있던 그 곳 태안반도 봉사활동의 앨범을 열어 나 역시 잊고 있던 그 곳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또 사람들에게 들려주 면 좋겠다 싶었다.

태안반도, 그 이름을 들으면 기름때가 마음을 덮 어버린 것처럼 답답하다. 그 심정은 어떤 이들도 마찬 가지였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태안반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으나 마땅히 방법을 모르던 학생들에게 태안반도로의 봉사활동 초대장을 웹자보로, 플랑으 로 나누었다. 학생들 또한 참여하고 싶은 것이라 생각

했으나, 막상 시험기간에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되었다. 결국 다행히도 혹은 감격스럽게도 신청자 수는 1000명에 육박했다. 끝도 없이 기름으로 덮인 태안반도겠지만, 학생들의 봉사에 대한 큰 열망으로 희망이 보이는 듯 했다.

태안반도 봉사활동을 갔던 12월 27일 새벽 여섯시, 학생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하나 둘 오기 시작했고, 결국 거의 모든 학생들이 참석했다. 우리는 세 시간 가량 걸려 태안반도 충남군 구름포 해수욕장에 도착했다. 도착할 즈음 쉬고 있던 학생들은 눈이 휘둥그레져 태안반도를 바라보았다. 언론을 통해 오염된 태안반도를 보았지만, 그렇게까지 심할 줄이야... 그곳은 검은



기름 때로 예전의 푸르름을 잃어버렸고 지독한 기름 냄새로 지릿한 소금의 바다 향기 또한 잃어버렸다. 숨이 턱 막히는 광경이었으나 우리는 그저 바라볼 수만은 없었다. 기름이 닿지 않도록 학생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해야 했다. 양말 위에 장화를 신고, 헌옷 위에 방제복을 입고, 목장갑과 고무장갑까지 착용했다. 기름 냄새를 맡지 않기 위해 두 겹의 마스크를 썼지만, 기름 냄새가 진동하기는 매한가지였다. 그렇게 우리는 무장을 하고, 기름 바다로 뛰어들었다.

작은 바위들을 들어 올리니 기름이 샘처럼 고여 있

었다. 예전에 바다에 와서 작은 바위를 들어 올렸을 때는 작은 미생물들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는데, 이제 거만 기름만이 역한 냄새를 풍기며 나폴뎀 뿐이었다. 예전에는 굴이며 조개가 붙어있을 그곳에 죽은 굴과 조개껍데기만 화석처럼 눌러 붙어있었다. 당연히 어떤 작은 생물도 일절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그 죽음으로 뒤덮인 태안반도에서 필사적으로 기름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곳엔 다행히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은 헌옷이나 천이 있었다. 여러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기름을 닦는 데 사용하라고 보내주신 귀한 물품들이었다. 우리는 헌 옷과 천이 가득 담긴 봉투를 들고 깊이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서인지 더 많은 기름이 고여 있었다. 학생들은 바위에 고인 기름을 닦아내기 위해 삽을 사용하기도, 숟가락을 사용하기도 하며 열심히 문질렀다. 그러나 닦아도 닦아도 바위는 거뭇게 그대로였다. 그래도 천으로 옮겨 묻은 기름을 보며, 하얀 천이 거뭇게 변하면 변할수록 거만 바위도 변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많은 학생들은 여기저기에 앉아 바위며, 돌이며, 자갈을 열심히 닦고, 또 문질렀다.

학생들은 제 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기름을 닦았다. 자갈 하나하나 천으로 닦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담요 안에 기름이 묻은 자갈들을 넣고 담요를 마구 비비며 기름을 닦아내는 사람도 있었다. 또 모래 바닥을 파서 기름이 물 위로 떠오르게 한 후 천으로 기름을 짚어내는 사람도 있었고, 위에서 말했듯 숟가락으로 긁어내고, 삽으로 파내는 사람도 있었다. 이 모두 기름을 닦는 긴요한 방법이 될 수 있으니 독자들도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열심히 닦아내던 중 문득 갑갑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끝도 없이 덮인 기름을, 닦아도 닦



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기름때를 열심히 닦고 있었다. 왜 수십만의 인파들이 태안반도에 몰려들어 이렇게 봉사하고 가는가? 이러한 엄청난 재앙을 낳은 기업은 따로 있었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무고한 자들은 이곳에 와서 기름때를 닦고 있었다. 그저 개인의 과실로 덮여버리기에 너무나도 큰 재앙이었다. 20년이 지나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기 힘든 현 상황에서, 46종의 생물이 사라져버린 현 재앙의 사태 앞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하나의 사건사고처리처럼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일까 의문과 회의가 들었다.

하지만 어쩌면 그러한 절망적 상황이었기에 잘못에 대한 질타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물론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잘못에 대한 엄중한 처벌 또한 명확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더 가해져야 하겠으나, 현재의 오염된 태안반도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의 용기 있는 행보와 참여가 기다려질 수밖에 없다.

태안반도의 앨범을 닫으며, 그때를 다시 한번 떠올려본다. 나는 그 때 그곳에서 죽은 바다를 보았다. 온통 죽음뿐이었다. 바다와 바위, 모래사장은 검은 기름에 숨 막혀, 어떤 작은 생물도 보이지 않았다. 온통 시커먼 기름으로 숨 막힌 그곳을 보며 나 또한 숨이 막

혔다. 그러나 나는 또한 그곳에서 절실한 희망의 생명을 보았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죽은 태안반도를 살리기 위해 생명의 몸부림을 쳤다. 학생들이 지나간 그곳에는 지워진 기름 때 만큼 다시 바다가, 바위가 숨을 쉬는 듯 했다. 절망으로 휩싸인 그곳이었지만, 분명 그곳에도 희망이 있었다고 나는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자리엔 태안반도의 옛 모습을 찾기 위해 발걸음한 당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연정. 늘 마음 행복한 그 이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김정환('94)

동문회관에서 가끔 선후배, 동기가 결혼을 합니다. 다같이 모여 떠들다 보면 누군가 꼭 한마디 건넵니다. “우리 연희관 담쟁이 한 번 보러 갈까?” 연희관이라는 건물을 보고 싶고 담쟁이가 보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 때 그 시절을 다시금 마음으로 느끼고 싶은 거겠지요. 함께 찾는 연희관 앞에서는 더 즐거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연정공동체는 어떤 의미였기에 그런 흐뭇한 웃음과 즐거운 대화를 만들어 주는가 생각해 봅니다.

대학시절, 연정인이라는 소속감은 다른 그 어떤 소속감보다 특별한 무엇을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민주정치 그날까지, 자주외교 그날까지”를 큰 목소리로 외치며 불렀던 과가(科朋인) ‘불나비’는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 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모의국회, 연정공동체 수련회, 고려대학교 정의과 학생들과의 과교류 등은 우리가 연정인이라는 것을 한껏 느끼게 해주는 고마운 행사들이었지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었고 “정의과 애들은 몰려다닌다”는 선입견을 타파생

들에게 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회가 활성화 되어 6개 학회 모두 사람들이 넘쳐났었지요. 각 학회는 우리 시대에 있어 사회모순이라 여겨지는 지점에 대해 참 많은 토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학회가 함께 하는 여름 학회 합숙 행사에서 계속되는 읽기와 세미나에 지쳤던 기억도 지금은 즐겁게 여겨지는군요.

그러나 이러한 ‘함께’의 기억만이 연정공동체를 흐뭇하게 여기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정공동체의 구성원은 개개인이 남달랐습니다. ‘정치외교’라는 이름을 자신의 가슴에 담을 결심을 한 사람은 이미 다른 이들보다 더 큰 포부, 그리고 더 큰 시야를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다른 어떤 전공보다 수업시간에 깊은 토론을 하며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배웠고, 수업 외적으로도 선배, 동기들로부터 훌륭한 생각을 많이 접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친구들보다 실력 있고 능력있는 친구들이 연정인이라고 여긴다면 저의 지나친 연정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될까요? 실제로 정의과에서 과활동을 하지 않는 연정인들도 다른 동아리 또는 단체에서는 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단순히 능동적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현재 자신이 속한 모임과 자신의 속한 사회에 대해 애정을 듬뿍 가지고 그 애정을 마음껏 표출하는 힘, 그리고 그 애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노력, 그런 것들이 우리 연정인이 가진 힘이 아닐까요?

우리 연정공동체는 ‘함께’하는 법을 알기에 빛나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연정이라는 그 이름만으로 충분히 빛을 발할 수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의식의 쇠락에 대하여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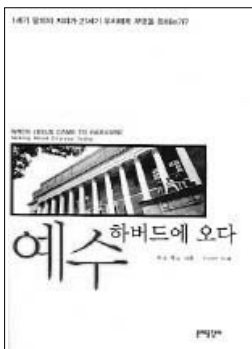
네요. 함께 모여 하는 일이 조금 줄어들었을뿐 우리 연정공동체의 한 명 한 명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연정을 통해 배우고 성숙한 자기 자신의 모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니까요. 연정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은 한 명의 연정에 대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 연정에 대한 사랑은 결국 자신의 삶에 대한 애정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뭉쳐서 연정을 외치는 것만이 진정한 사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정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연정의 의미를 가장 긍정적으로 삶에 실현시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연정공동체의식 아닐까요?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 우정, 신뢰, 노력... 이 중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예쁩니다. 이렇게 예쁜 단어 앞에 슬그머니 한단어를 더 밀어 넣습니다. ‘연정공동체에 대한 사랑’.

다시 찾는 연희관 앞에서 친구들과 그렇게 즐겁게 웃을 수 있는 것, 바로 그런 사랑 때문이겠지요.

『예수 하버드에 오다』

김석원(정치학과 석사과정)



하비 콕스 저,
오강남 역,
『예수 하버드에 오다』
(서울: 문예출판사, 2005).

헨리 키신저는 그의 회고록 *White House Years*에서 학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후 겪어야 했던 부담을 “선택”과 “결단”이라는 관점에서 길게 토로하였다. 정치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단순히 의견의 그럴듯함과 논리성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정보의 부족이 이어지고 이상적인 선택지가 늘 빠져 있더라도 반드시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의 표현대로 모든 정치지도자의 공적인 삶은 환경의 압력으로부터 선택의 여지를 유지하려는 지속적인 투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어떤 학문연구보다 정치학이 부담을 가져야 할 독특한 분야가 있다면 바로 이 “선택과 결단”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선택은 이상과 현실, 가치와 효용, 당대의 평가와 역사적 평가, 그 어느 것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다. 특별히, 날로 다원화되어가면서 가치의 상대주의와 회의주의가 근대적인 담론들을 급격하게 해체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판단과 선택의 부담을 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본호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비록 윤

리적인 선택이란 주제에 국한돼 서술되어 있지만 이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우리들에게 일종의 영감과 지혜를 준다는 점에서 꼭 소개해보고 싶다.

저자 하비 콕스는 *The Secular City*의 저자로 잘 알려진 신학자로서, 참된 신학은 초월적인 지향성을 가지기보다 창조세계 안에서 그 의미를 끊임없이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이 책은 그가 하버드 대학에서 이끌었던 ‘예수와 윤리적 삶(Jesus and Moral Life)’이란 과목의 강연내용과 그 속에서 이루어진 학생들과의 상호교류를 토대로 이루어져 있다. 저자가 마주쳤던 학생들은 “선의를 가졌으나, 무언가 불편해하는 상대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순수하였고,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도 가지고 있었으나 어떤 기준과 가치로 움직여야 하는지 어려워했고, 상대주의에 공감하면서도 그것이 무언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자의 표현을 빌자면, 그들은 만사를 다안다고 하는 독단주의와 모든 것이 괜찮다고 하는 상대주의의 모드를 거부하는 ‘불편함’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저자와 학생들이 이 난제를 벗어나 올바른 윤리적 삶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 돌아보았던 주제는 바로 예수에 대한 것이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를 구원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자신만의 가르침을 설파했던 한 인물이 오늘날 윤리적 선택의 문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정말 예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언가 중요한 윤리적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가? 저자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유대인 랍비(Rabbi)로서 올바르게 이해할 때 가능하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유대인 랍비의 가르침은 우리가 탈무드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 강령적이고 지침적인 성격을 가진 윤리적 공리를 제공해주지 않

는다. 그들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화와 이야기 등을 들려주면서 가르침을 받는 이에게 구체적으로 그들 앞에 제시된 가공적 삶(우화, 이야기)에 뛰어들어 스스로 해답을 얻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저자가 보기에 예수는 전형적인 유대인 랍비의 가르침을 주었다. 예수는 언제나 직접적인 질문과 난제를 가져온 이들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가르침을 제시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저자는 현대사회가 윤리적 선택과 결단을 하는데 있어서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능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상상력”이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 처하는 윤리적 선택의 상황에 그대로 처할 수는 없다. 인간은 모두 각기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새로운 문제와 만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교과서에 적혀있는 지침과 강령을 통해 윤리적 결단을 내리려는 것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한계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누구도 예수가, 히틀러가, 본회퍼가, 트루먼이, 이승만이, 김일성이 처해야 했던 상황을 똑같이 맞이할 수 없다. 저자 하비 콕스는 선택과 행동이 필요한 여러 상황에 스스로를 대입하는 윤리적 상상력을 발휘한다는 관점에서 총 26가지의 주제를 성경과 신학, 현대사회의 문제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가며 자신의 주장을 전개해 나간다. 글을 마치면서 그는 이 과목에 가장 어울리는 성적은 언제까지나 “불완전이수(incomplete)”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일률적인 답으로 쉽게 회피해버리는 윤리적 선택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상상력의 능력을 통해 이성과 감정, 통찰력과 분석력, 가치윤리와 책임윤리를 총체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끊임없는 여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독단적인 근본주의와 허무적인 상대주의의 폐해를 동시에 목도하고 있다. 수많은 정치적 리더십들이 양극단 중 하나에 굴복하게 되는 것은 자

신의 선택과 결단을 위해 너무나 쉬운 답을 찾으려는 안이함에서 비롯되고 있지 않을까? 성경과 코란의 몇몇 피상적인 주장 혹은 보편성의 해체가 가져다주는 지성적인 만족에서 선택의 근거를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닐까? 이 모두는 상상하고자 하는 용기와 창의력의 고갈을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 모두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안다는 점에서 저자와 마주했던 하버드 대학생들과 같은 입장에 서있다. 우리 모두는 “선의의, 그러나 불편해 하는 상대주의자”이다. 이런 점에서 “상상력의 회복”을 주장하는 본서의 내용은 매우 유익한 가르침을 준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선택과 결단의 압력에 용기 있게 맞서야 하며, 쉽게 교과서적인 강령과 지침을 갈구하기보다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삶의 요소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랍비 예수는 오늘날도 이라크, 레바논,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다. “너의 생각은 어떠한가?”

다양한 영역에서, 상황의 압력 속에서, 선택의 여지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든 연정인들에게 일독을 권하며, 독서의 즐거움을 같이 나누고 싶다.



칭찬이어가기



칭찬 이어가기 꼭지는 연정공동체 구성원 간에 스스로없이 칭찬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기획됐다. 연정 동문, 교수진, 학부생, 대학원생 모두가 이 코너를 통해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 칭찬 이어가기의 첫 주자는 KBS 아나운서 최원정 동문(94)이다. 이번 『연정소식』 속간 작업에 많은 도움을 준 박경하 동문(97)이 추천했다.

첫 번째 주자 |

KBS 아나운서 최원정 동문(94)

돌이켜보면 저는 학과 활동을 매우 열심히 했습니다. 연정수련회 준비며 연정소식지 창간, 졸업 후 참가한 '연정의밤' 행사까지 모두 기억에 남습니다. 재학 당시 철학학회 활동을 했던 직장인들끼리 가끔 모이는데, 학창시절의 객기를 상기하며 '불나비'를 부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뭉클한 소속감을 느낍니다. 후배들에게는 두려움을 버리고 자신이 접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도전장을 내밀어보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칭찬 이어가기 다음 주자로 심찬구 선배(90)를 추천합니다. 새로운 영역의 개척자라는 점에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정치학 공부를 꾸준히 하시다가 스포츠 마케팅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주자 |

(주)스포티즌 대표이사 심찬구 동문(90)

저의 대학생활은 다양한 경험과 시도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3학년 때, 일본의 ICU로 교환학생을 다

녀왔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흘러간 이념의 충돌에 경도된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가에서 온 도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친구들과의 만남은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학생 본연의 영역인 공부에 소홀했던 점이 아쉽습니다. 우리 연정인들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조금은 특이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긴 합니다만, 뜻하지 않은 장소·시간에 연정인을 만나 동지애를 느낄 때 가장 큰 소속감을 느낍니다. 저는 우리 연정 후배들이 많은 경험을 해보고, 많은 사람을 만났으면 합니다. 경험에서 '스토리'와 '창의'가 발현됩니다. 새로운 시대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감성을 계발하고, 내면에 많은 심상을 체화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칭찬 이어가기 다음 주자로 송동훈 선배(89)를 추천합니다. 대단히 재능 있고 뛰어난 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책을 썼습니다. 고전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 조예가 깊어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후배들이 찾아가면 맛있는 걸 많이 사줄 겁니다.

『연정소식』은 1995년 창간됐고, 2008년 3월에 속간됐습니다. 본 호는 속간 1호(통권 제4호)로서, 2007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의 소식을 기사화했습니다. 편집상 누락된 부분이나 그 이후의 소식은 다음호에서 다루겠습니다. 『연정소식』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화: 02-2123-2940 / FAX: 02-393-7642 / E-mail: yjpress@gmail.com / 웹진: http://yonjong.net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연정기자단 우) 120-749

편집후기

밤샘 편집할 때 깔고 잤던 신문지의 바삭함, 취재를 성사 시켰을 때의 상큼함, 멋쟁이 조교님이 사다주신 크리스피의 달달함, 정 신적 지주인 교수님이 사주신 존재의 이유 정찬 세트의 담백함. 제게 연정기자단은 맛있는 식탁이었습니다. 한상 차려 내노라고 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예진('06)

학과 내의 연정인들 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동문들까지 처음 일을 맡았을 때를 돌아보면 흠뻑 젖어 있는 퍼즐 조각을 맞추는 기분이 들었다. 오랜만에 맞추어보는 '연정'이라는 퍼즐이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면서 그리고 우리의 글이 점점 완성되어 가면서 오히려 그 '연정'이라는 퍼즐을 꼭 맞추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도 계속 『연정소식』이 학부와 동문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으면 한다.

/이유정('06)

연정기자단과 함께 했던 지난 한 해를 저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연정기자단은 저에게 당당히 연정의 일부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짧은 시기나마 저는 '교환학생'이 아닌 '연정인'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막 1호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고동락을 함께 했던 모든 학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조진형(2007년 교환학생, UBC 정치학 4년)

지난 한 학기동안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커진 일들로 많이 힘들었지만 연정기자단 활동은 그중에서도 제일 가슴 벅차고 즐거운 일이었다. 내 마음속에 희미해졌던 '연정'이라는 이름을 또렷하게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연정소식』을 읽는 사람들 또한 나와 같은 경험을 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장미('05)

생각만큼 쉽지 않았던 취재들과 좀 더 치열하지 못했던 지난날에 대한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보다 철저하게 준비했어야 했고, 더 많은 연정인들을 만났어야 했고, 더 깊이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연정소식』을 복간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연정인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보탬이 되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신나리('05)

화룡점정. 내내 생각했던 말이다.

노동자를 그렸으니 날아오를 일만 남았구나!

특pecially 서명호 조교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세희('04)

당신들께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싶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걷는 '우리'가 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연정소식』이 답이었습니다. 복간이 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김명섭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은정('04)

연정발전기금에 도움 주신 분들

서종범, 이우복, 김지희(Connie Kim, 신라명과), 김상준, 양선모, 목준균, 김진수, 이일환,

최동인, 홍성완, 차경남, 구자균, 김서현, 송미영, 신성원, 이상윤, 채경훈, 하대국

연정공동체 발전 기금 기부 안내



기부자님의 회사에서 '연정소식 광고비'로 기부금의 계산서를 원하시는 경우

A. 연세대학교 대외협력처 계좌로 기부자님 성함 또는 회사명의로의 기부금액을 입금합니다.

* 대외협력처 계좌 : 126-150447-01-115 (우리은행)

B. '사업자등록증'을 대외협력처 담당자에게 Fax로 송신합니다.

송신하실 때 다음의 내용을 함께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계산서를 받으실 분의 성함(보통 기부자)과 전화번호
- 2) 계산서 처리 담당자의 부서 및 이름

* 대외협력처 Fax, 02-365-6242

C. 대외협력처 담당자 : 엄태진 팀장(02-2123-2249)

연정발전기금에 소액기부를 원하시는 경우, 다음 홈페이지를 통해 해주시면 기여자명단에 길이 보존됩니다.

<http://fund.yonsei.ac.kr/>

2007년 외무고등고시 합격자 중 6명이 화백실 발전을 위해 300만원을 기부했다.

모교 사랑에 참여하며 고시 합격의 기쁨을 나누는 주인공은, 류은진('01, 외교통상부 외교역량 평가단), 송미영('02, 신성원('99, 외교통상부 북미 1과), 이상운('99, 외교통상부 국제협약과), 채경훈(사회·01, 외교통상부 북서아프리카과), 하대국(법학·00, 외교통상부 남아시아대양주 지역협력과) 동문이다.

우리대학교는 2007년 제41회 외무고등고시에서 전체 선발 인원의 35.5%에 해당하는 11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바 있다.



『연정소식』 속간을 축하합니다!

연정 언론인회

김문순(62, 조선일보)
 김충환(71, KBS)
 홍성표(72, 연합뉴스,
 연정언론인회회장)
 안희창(73, 중앙일보)
 김상수(75, MBC)
 김영규(75, 한국경제)
 이상일(75, 서울신문)
 송태권(76, 한국일보)
 서배원(79, 경향신문)
 조희제(79, 서울경제)
 한상덕(79, KBS)
 박익원(80, KBS)
 박대출(80, 서울신문)
 정남기(80, 한겨레)
 남경욱(81, 한국일보)
 손희식(81, 한국경제)
 박병한(81, YTN,
 연정언론인회간사)
 윤경호(81, 매일경제)
 정선구(81, 중앙일보)
 최현수(81, 국민일보)
 이철민(81, 조선일보)
 김재일(81, 한국경제)
 김경곤(81, 부산 국제신문)

김근식(81, CBS)
 강무성(81, SBS)
 조민성(81, SBS)
 고기화(81, 부산국제신문)
 김민철(81, 연합뉴스)
 김학준(81, 한겨레)
 유태종(81, 조선일보)
 허택회(81, 한국일보)
 임호준(82, 조선일보)
 김상철(82, 동아일보)
 여동은(82, 한국일보)
 진경호(82, 서울신문,
 연정언론인회간사)
 조영훈(83, 서울경제)
 유창석(83, 연합뉴스)
 이도운(83, 서울신문)
 김동국(84, 한국일보)
 김진호(84, YTN)
 김철수(84, 한국경제)
 이종수(84, YTN)
 윤근영(84, 연합뉴스)
 전종철(84, KBS)
 임상균(84, 매일경제)
 도인태(84, MBC)
 유형렬(84, 경향신문)

이상훈(84, 동아일보)
 최재석(84, 연합뉴스)
 조해동(85, 문화일보)
 고승욱(85, 국민일보)
 양성철(86, 중앙일보)
 김영식(86, 동아일보)
 김경도(87, 매일경제)
 이진석(87, 조선일보)
 차병석(87, 한국경제)
 박신흥(87, 중앙일보)
 오관철(87, 경향신문)
 이호갑(87, 동아일보)
 김창석(87, 한겨레)
 신웅진(88, YTN)
 하태원(88, 동아일보)
 북창현(88, KBS)
 김태형(88, KBS)
 최문호(88, KBS)
 호준석(88, YTN)
 김정욱(88, 중앙일보)
 정남구(88, 한겨레)
 이상원(88, MBC대구)
 도건협(88, MBC대구)
 명순영(93, 매경이코노미)

『연정소식』 속간을 축하합니다!

연정학회(연세정치학연구회)

회장 김상준(81, 연세대)
부회장 유현석(82, 경희대)
부회장 김영일(82, 신라대)
총무 이재현(90, 연세대 BK)

연정학회는 연세 출신의 정치학자들의 모임으로 현재 250여명의 회원이 국내외의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제 17대 국회의원

유재건(56)	김태환(61)	맹형규(65)	권철현(66)
변재일(67)	공성진(72)	유정복(76)	김현미(81)
김희정(90)			

연정노무사회

이일환(83) 이록희(94)